

#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1993. 12

李宇榮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要 約

東歐 및 蘇聯의 몰락과 中國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높은 社會統合力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사회가 강력하게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統制體制를 확립하여 物理的으로 인민들을 強制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支配理念과 思想을 효과적으로 인민들에게 확산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배이념이 효율적으로 인민들에게 內面化되었다는 것은 북한의 政治社會化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치사회화의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傳統文化的 要素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社會主義 理念과 배치될 수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가 활용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중심의 權力構造와 김정일로의 權力承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가 활용되는 예로서 북한의 映畫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文學·藝術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理念을 홍보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政治社會化的 媒體이다. 특히 영화는 同時에 同一한 내용을 多數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레닌 이래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북한의 映畫도 중요한 政治社會化的 媒體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더욱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개인적 관심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중시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영화는 사회주의체제의 優越性, 김일성의 위대함, 김일성 家系의 우수함을 선전하고 反韓 및 反美意識을 고양하는데 동원되

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소재로는 抗日遊擊隊活動, 韓國戰爭, 勤勞生活 그리고 김일성 一家의 個人史 등이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영화가 지향하는 바는 여타의 문학·예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文化的 建設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영화에서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家族主義, 家父長的 秩序觀 그리고 男性 중심의 男女關係가 북한영화에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사회의 在來慣習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개인의 행위의 준거로 가족이 중시되는 家族主義나, 아버지를 중심으로 血緣關係 및 家族關係로 位階를 정당화하는 家父長制 그리고 남성을 중시하는 男女差別은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北韓映畫에서 傳統文化的인 요소들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영화가 북한의 현실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예술은 典刑化와 傾向性을 지향하고 있으며, 黨에 從屬된 예술은 體制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영화에서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政治的 이유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영화에서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이 강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權力體制의 維持에 傳統文化가 順機能的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家父長的 權威構造를 강조함으로써 김일성 唯一體制로 대변되는 權力集中은 正當性을 보장받을 수 있다. 둘째, 父子世襲으로 표현되는 權力承繼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전통문화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家族主義와 血緣의 강조는 아들에게 권력을 移讓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血統의 강조를 통하여 김정일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輕減시킬 수 있다.

북한에서 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政治社會化의 效率性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意思傳達 방식을 활용하고 전통적 문화구조와 타협함으로써, 일반사람들이 새로운 이념을 受容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 拒否感을 弱化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社會統合을 증대시켜 현재의 북한체제의 安定性을 提高하였다고 할 수 있다.

政治的인 意圖에서 전통문화를 활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북한에서 전통문화가 殘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통문화의 現實 適合性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 북한에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保存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향할 南北韓間 社會·文化的 統合을 위한 중요한 土臺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方法	6
第 II 章 社會主義體制에서 傳統의 排擊과 受容	8
1. 社會主義 國家 政治社會化와 傳統文化	8
가. 社會主義 國家 政治社會化의 特性	8
나. 社會主義體制와 傳統文化	13
2. 北韓의 政治社會化와 傳統文化	19
가. 北韓 政治社會化의 特性	19
나. 北韓體制와 傳統文化	23
第 III 章 北韓映畫 分析	33
1. 北韓映畫의 政治的 役割	33
2. 분석틀과 分析對象 作品	44
가. 분석틀	44
나. 分析對象 作品	49
3. 北韓映畫에서 表出되는 傳統文化	57

가. 家族主義	57
나. 家父長的 權威主義	60
다. 男性 中心의 男女關係	63
라. 在來慣習들의 持續	66
4. 北韓映畫에서 表出되는 社會主義的 要素 및 傳統的 要素	67
第Ⅳ章 映畫分析을 통해서 본 傳統文化的 機能	73
1. 權力集中의 正當化	73
2. 權力世襲의 正當化	77
第Ⅴ章 結 論	80
參考文獻	84
附 錄	93



## 第 I 章 序 論

### 1. 研究目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와해되고, 중국도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함에 따라, 북한도 붕괴되거나 아니면 극심한 變革를 경험할 것이며 따라서 統一이 임박했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북한이 동구나 소련 그리고 중국과 같은 변혁과정을 겪으리라고 보기 어렵다.<sup>1)</sup> 북한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일을 소망하는 價値介入的인 판단 때문에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였으며, 둘째,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북한의 社會·歷史的 特殊性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독일의 後遺症이 두드러지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가시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통일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이 저하되어 앞의 첫번째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북

- 
- 1)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타결로 상징되어지는 남북한 대화의 제한적인 진전이나, 해외동포 입국 허용 폭의 확대와 같은 정책변화를 고려한다면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북한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근본적인 체제의 변혁이나 이를 촉발할 수 있는 기초적 개혁조치들도 없었다. 따라서 체제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한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규명할 수 있는 多次元的인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및 변화 양상을 전망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수성은 여러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長期間 지속되고 있는 一人支配와 강력하게 統合되어 있는 지배엘리트 구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對外依存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分斷國家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특수한 조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강력한 社會統合 능력을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효율적인 社會統制를 수행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사회변혁을 겪지 않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全體主義的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강력한 사회 통제 기제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sup>2)</sup>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物理的 強制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통제연구에서는 사회 통제에는 물리력을 통한 강제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통한 規範

2)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최운지 역, 「전제주의독재정치론」 (서울: 정림사, 1971), 서론 참조.

的 統制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sup>3)</sup> 또한 규범적 통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支配集團이 支配理念으로 삼은 이데올로기나 가치를 피지배자에게 注入하는 과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지배집단이 지배이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受容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통제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는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첫째, 사회통제를 물리적 통제와 동일시한 나머지 제도적인 차원의 통제기구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둘째, 규범적인 통제를 분석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입장은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셋째, 지배이념은 단지 물리적 억압에 의해서 주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존의 연구자들이 북한은 小數의 지배집단만이 만족하는 全體主義 體制이며, 물리적 억압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受動的으로 체제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통제를 위하여 동원되는 규범적 통제의 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 그리고 지배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배집단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 등에 대하여 관심이 부

---

3) 알튀세(Althusser)는 물리적 억압기구(repressive state apparatus)와 이념적 억압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를 구별하고 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Louis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Ben Brewster, tran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pp. 141~148.

족하다.

규범적 통제는 지배이념의 확산이며, 구체적으로 지배이념의 확산은 政治社會化 過程을 통해서 이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통제 기제를 이해하고, 북한의 사회통합을 설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사회화 과정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치사회화의 內容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치사회화를 수행하는 制度的 特性이다. 따라서 북한이 효율적인 정치사회화를 수행하였다면, 사회구성원들에게 수용 가능한 이념을 확산시켰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북한정치사회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자 즉 제도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 경향이 없지 않다.<sup>4)</sup>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주민들이 自由意思에 따라 정

---

4)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사회화 정책, 사회화 실태, 사회화 조직 등이다. 그리고 교육체계와 연결하여 북한의 정치사회화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사회화의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대부분 사회화의 외형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연구들로 다음의 논문들을 참조할 수 있다. 차영수, “공산주의 교육과 정치사회화 과정,”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3호 (1978); 진원중,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 정책,”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4호 (1978); 도홍렬,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4호 (1978); 고영복,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추세,”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4호 (1978); 김병원, “강화이론에 비추어 본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5권 1호 (1979).

치사회화의 내용이 되는 정치이념을 수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先入見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효율적인 정치사회화의 제도를 구비하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정치사회화를 수행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효율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수용가능한 내용으로서 정치사회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정치사회화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수행되어진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傳統的 價値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sup>5)</sup> 전통적

5) 최근 북한에서는 孝子를 지칭하는 ‘효성동이’란 개념을 만들고, 孝를 상징하는 꽃으로 ‘효성화’를 선정하는 등 忠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현체제와 전통문화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에서도 북한에서 전통문화가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최재현, “북한사회이념속에 전통적 요소: 김일성 저작집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14 (1988);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윤리·법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IV): 북한의 경제·사회·사법제도분야』 (서울: 통일원, 1992); 조혜인, “북한의 종교: 유교적 유산을 통하여,” 『동아연구』, 25 (1992); 후르카히로시(古田博司), “북한에 있어서의 유교전통과 주체사상의 전개: 김정일의 <7.15담화>를 중심으로,” 『下關市立大學論集』, 34 (1991); Thomas Hosuk Kang,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ersonality From Confucian to Communist,” in Jae Kyu Park and Jung Cun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79).

가치가 활용된 背景과 役割을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북한에서 傳統文化가 體制維持에 어떻게 機能하였는가를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전통 문화 중에서는 특히 전통적 가치들이 사회주의 북한의 건설과 유지에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에서 북한 정치문화의 성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차후에 전개되리라고 전망되는 남북한 文化交流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의 殘存 여부와 그 수준을 추론함으로써 남북한 주민간의 異質性 극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정치사회화의 특성을 검토하고 이를 북한과 比較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일차적으로 북한 정치사회화의 제도적 특성 및 사회화의 내용을 비교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성을 규명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비교분석방법에서 특히 差異法을 이용하여 북한 정치사회화의 獨特性을 밝히고자 한다.<sup>6)</sup>

6) 차이법에 대해서는 존 스튜어트 밀, “비교의 두방법,” 차중천 역,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서울: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석의 텍스트로서 북한의 文學·藝術의 한 장르인 映畵를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는 레닌 이래 중요한 사회화의 媒體(agent of socialization)이기 때문이다.<sup>7)</sup> 더욱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영화를 宣傳·煽動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영화는 정치사회화 특히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사회화의 가장 핵심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社會的 條件의 변화에 따라 이념과 사상의 내용이 변한다는 知識社會學的 觀點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내부의 權力承繼의 進行과 북한이 처한 國際的 環境變化를 사회적 조건으로 간주하고, 정치사회화의 내용의 하나인 傳統文化의 內容 變化를 사상의 변화로 간주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전통문화 요소가 정치사회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보다 명확해지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II장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정치사회화의 一般的인 特性과 傳統文化의 活用實態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정치사회화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텍스트분석을 통하여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드러난 傳統文化的 要素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IV장에선 북한의 體制維持와 傳統文化와의 關係를 분석하고자 한다.

---

열음사, 1990), pp. 217~221 참조.

7) 북한영화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최척호, 「북한예술영화」(서울: 신원문화사, 1989), pp. 14~16 참조.

## 第 II 章 社會主義體制에서 傳統의 排擊과 受容

### 1. 社會主義 國家 政治社會化와 傳統文化

#### 가. 社會主義 國家 政治社會化의 特性

政治社會化는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政治過程이다.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 이념을 수호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입하는 정치사회화는<sup>8)</sup>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정치사회화는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 그리고 사회화의 매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民主主義 國家에서는 정치사회화의 목표가 되는 政治的 定向 (political orientation)은 서로 다른 階級들의 道德觀이 자주적으로 수렴되어 정립된다. 또한 정치사회화의 내용도 상대적으로 多樣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사회화의 매체가 家族, 學校, 同僚集團(peer group), 職業集團, 매스미디어 등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매체는 相對的 自律性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사회화의 결과로 複數政黨이 존재할 수 있고,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정향을 표출할 수 있게 된다.<sup>9)</sup>

8) Gabriel A. Almond and G. B. Powell,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p. 54.



社會主義 國家들은 劃一的인 政治理念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民主主義 國家와 차이가 있다.<sup>10)</sup> 따라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몇대로의 채널들이 방치되지도 또 될 수도 없으며, 체제가 주장하는 이념을 거역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知識이나 價値 또는 態度를 용인하지도 않는다. 국가는 이데올로기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개개인의 심성을 창조하고 지도하며 또한 엮낸다.<sup>11)</sup>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사회화는 社會와 人間을 唯一한 理念體系로 형성시키려는 유례없는 인류의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정치사회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로운 社會主義的 人間像을 정

---

9)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기본적인 정치이념들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본다면 복수정당의 인정이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제가 지향하는 정치이념에 반대하는 정치운동도 활발하였고, 지배체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반체제운동을 수행한 집단도 체제의 정치사회화의 결과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Gary Bertsch, Robert P. Clark and David M. Wood,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ower and Policy in Three Worl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pp. 92~96.

10) Ibid., p. 236.

11) 김덕, “정치사회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 정치과정」 (서울: 정음문화사, 1985), p. 252.

12) 오세철, “베트남의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동: 프랑스 식민지 시대 이후를 중심으로,” 김달중·구성렬 외,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서울: 법문사, 1992), p. 103.

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소련은 개인주의나 탐욕과 같은 부르조아적 특질을 탈피하고 대신 사회주의적 우애의 원칙을 수용하는 규범적인 共產主義的 人間을 개발하는 데 정치사회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sup>13)</sup>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가족, 학교, 동료집단, 성인집단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매체라는 점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각 媒體는 國家에 의하여 엄격하게 管理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주입되는 사회화의 내용은 인위적으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 정치사회화는 민주주의 국가와 차이가 있다.

첫째, 國家主導의 사회화를 위해서 가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화의 기능이 공적인 부분으로 이양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사회주의 건설 이전의 政治定向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계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소련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가족과 유리시키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부모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였다.<sup>14)</sup>

둘째, 학교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념을 확산시키는 정치사회화에 있다. 일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보편적 가치를 주입하

13) 김덕, “정치사회화,” p. 253.

14) 위의 논문, p. 256.

거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교육 보다는 정치이념 교육이 우선하며 이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된다.<sup>15)</sup> 따라서 학교는 이념적 기관이 된다.<sup>16)</sup> 이러한 경향은 특히 ‘文化革命’ 시기의 중국에서 두드러졌다.<sup>17)</sup>

셋째, 민주주의 국가의 동료집단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화의 매체가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는 인위적으로 靑少年 組織을 구성하여 이를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집단의 정치사회화를 대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소련의 ‘콤소몰’(Komsomol)이나<sup>18)</sup> 중국의 ‘共靑團’(공산주의청년단)이<sup>19)</sup> 그 예가 된다.

넷째, 成人의 사회화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각종 직업조직을 통하거나, 인위적인 재교육과정을 통하여 성인을 재사회화한다. 각종 조직을 통한 정치사회화는 일반인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체제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sup>20)</sup>

15) Bertsch, Clark and Wood,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p. 241~242.

16) 김덕, “정치사회화,” p. 259.

17) James C. F.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이문규 역, 「현대중국정치론」 (서울: 인간사랑, 1988), pp. 269~267; Bertsch, Clark and Wood,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 242.

18) 콤소몰은 유년대(7~9살), 소년·소녀대(10~15살), 청년공산동맹(14~28살)으로 구성된다. 김학준·전인영, 「소련 및 동구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p. 77~78.

19) Bertsch, Clark and Wood,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 243.

20) 중국의 경우 「中華全國總工會」, 「中華全國婦女聯合會」, 「農民協會」

다섯째, 모든 매스미디어를 국가가 장악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사회화가 일관되게 이루어진다.<sup>21)</sup> 지배엘리트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있으며, 주로 下向的인 정보전달 역할을 맡는 간행물, 텔레비전, 라디오는 대중의 협력과 지지를 호소한다.<sup>22)</sup>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부 내에 대중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으며, 黨의 산하에 宣傳煽動部(Department of Propaganda and Agitation)가 모든 文化活動까지 간섭한다.

여섯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가활동이나 개인적 창조에 주안점을 두는 文學·藝術 등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사회화를 위하여 동원된다. 후르시초프는 1956년 20次 全黨大會에서 映畫를 노동인민의 공산주의 교육을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으며,<sup>23)</sup> 모택동도 文藝는 노동자·농민·병사들을 학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모든 예술적 창작활동은 黨의 감독하에 창작되어지며, 그 작품의 내용은 黨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데 적합

---

등과 같은 성인조직이 정치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ang,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p. 211. 재사회화의 예로서 「문화혁명」 기간의 하방운동을 들 수 있다.

21) Ibid., p. 244.

22) 조규화, “소련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p. 270.

23) Leo Grulioiw, ed., *Current Soviet Policies II: The Documentary Record of the 20th Communist Party Congress* (New York: Praeger, 1957), p. 67, 조규화, “소련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p. 278에서 재인용.

24) 모택동, 이등연 역,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서울: 두레, 1989), p. 35.

한 것이다.

#### 나. 社會主義體制와 傳統文化

새로운 사회체제가 성립된 이후 기존 체제를 否定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집단을 부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체제를 유지하였던 지배이념에 대한 공격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이념의 정립 그리고 새로운 지배이념의 확산도 시도된다. 더욱이 혁명적인 과정을 통하여 新體制가 구축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부정이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革命的 方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성립한 소련이나 중국도 국가건설 초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를 강력하게 배격하였다.

또한 중국이나 소련의 초기 사회주의운동 지도자들은 反傳統的인 경향이 농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분위기가 고양되던 시기의 중국이나 소련의 역사적 조건은 상이하였으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당시의 지식계층은 近代化되고 資本主義化된 서구와는 달리 자신들의 조국이 舊體制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인식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들은 反傳統主義的인 성향을 갖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서구에 의한 근대화의 충격 속에서 家父長的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일부의 젊은 세대가 후일에 모택동을 비롯하여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다.<sup>25)</sup> 소련의 경우는 19세기 이래 러시아의 현실을 일반적으로 이상화시킨 슬라브애국주의자들에 반대하는 西歐主義者들이 생겨나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바쿠닌(Bakunin) 등으로부터 소련 마르크스주의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따라서 초기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중되던 ‘家族主義’와 ‘孝道’가 중공 정권의 타도 목표였다. 또한 지배엘리트는 전통문화 속에 있었던 가부장적 位階秩序와 구체제의 지배자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大衆의 敵對感을 혁명을 위하여 동원하였다.<sup>27)</sup> 소련도 초기에는 反家族主義적인 정책을 펴는 등 기존의 문화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을 定立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 초기의 反傳統的인 경향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겪었으며 따라서 점차 전통적인 요소들을 再受容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요소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시 부각된 것은 다음

---

25) 김영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의 사회주의」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p. 193; 서구침략시기의 중국지식인들이 보인 반전통적 경향과 마르크스주의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송영배, 「유교적 전통과 중국혁명: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3부 1장 및 2장 참조.

26) 바쿠닌은 무정부주의자이나 넓은 의미에서 서구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면서 ‘공산당선언’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Richard T. De Georgy, *Patterns of Soviet Thought*, 조태훈·박진환 역, 「소비에트사상의 구조」 (서울: 문우사, 1986), pp. 138~144.

27) Friedrich and Brzezinski, 최윤지 역, 「전제주의독재정치론」, p. 343.

의 세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초기의 사회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이 반전통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고는 하나, 자신들이 성장한 역사적, 문화적 토양과 완전한 결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택동의 이념의 핵심인 ‘矛盾論’도 전통적인 ‘陰陽理論’과 연관이 있으며,<sup>28)</sup> 레닌의 경우도 傳統遺産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9)</sup>

둘째, 強制的인 傳統의 단절이 인민들의 抵抗을 초래하여, 안정적인 체제구축을 위하여 전통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에서는 급격하게 가족을 약화시킨 결과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하였는데 특히 전통적인 가치가 강하게 잔존하여 있었던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sup>30)</sup> 소련에서도 傳統的인 文化環境과 적절히 妥協하게 되었고, 가

28) 김영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의 사회주의」, p. 228; 이 밖에 모택동주의와 전통유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들을 참조할 수 있다. Jack Gray, “China: Communism and Confucianism,” Archie Brown and Jack Gray, 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 Meire Publishers, Inc, 1979), pp. 217~222; 송영배, 「유교적 전통과 중국혁명: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pp. 451~455.

29) 블라디미르 고르부노프, 김정환 역, 「레닌의 사상투쟁」 (서울: 푸른숲, 1990), p. 73.

30) 소련에서는 1930년대에 가족의 구성원들끼리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 장려되었고, 이에 따라 파블리그라는 소년이 농부인 아버지를 비밀경찰에 밀고하여 숙청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파블리그라는 소년은 소련집단원과 청년동맹원들의 교범에 오를 수 있었지만 분

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다.<sup>31)</sup> 중국의 경우에는 과격한 家族 解體를 동반하였던 ‘人民公社’ 運動이 농업생산을 저하시켜 다시 協同組合體制로 복귀하였다.<sup>32)</sup>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共產化 이후 마르크스주의와 佛敎的 價値觀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사회주의와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sup>33)</sup>

셋째,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도자들이 個人的 支配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화적 전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련에서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民族問題를 부각시킨 경향이 있다. 레닌이 비교적 민족자결문제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스탈린은 러시아주의를 강조하면서 체제를 공고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

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살해되었다. 이 소년의 예는 전통적인 가치나 규범을 중시하는 일반 국민들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riedrich and Brzezinski, 최운지 역, 「전체주의독재정치론」, p. 349.

31) 소련에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944년부터이다. 이는 전체주의 사업에 필요한 人力資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족의 안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족과 국가간에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덕, “정치사회화,” p. 255.

32) Friedrich and Brzezinski, 최운지 역, 「전체주의독재정치론」, p. 322.

33) 오세철, “베트남의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동,” p. 121.

34) 스탈린이 비러시아인(그루지아인)이면서도 러시아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아니러니이다. 스탈린은 1930년대 이후 러시아 民族主義와 民族的 象徴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모택동이 中蘇紛爭 이후 소련적인 방법을 비판하고 사회주의의 中國化를 추구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배자의 권위를 정당화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통적 가치를 활용한 예는 동아시아 사회주의에서 두드러졌다.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모택동이나 호지명 지배의 정당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東洋의 傳統的 家父長制의 지배관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35)</sup>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를 排擊하고 受容하는 형태는 개별 국가마다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소련에서는 기존 가족제도에 대하여 宥和的이었던 반면,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過激한 가족 파괴정책을 시도하였다. 또한 레닌은 기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選別的 受容을 강조한 반면<sup>36)</sup> 모택동은 새로운 문화건설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소련보다 중

---

국제문제연구소 편, “러시아 민족주의,” 「소련사회문화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p. 79. 스탈린의 민족주의에 관한 견해는 스탈린, “맑스주의와 민족문제,” 서중건 역, 「스탈린 선집 1 (1905-1931)」 (서울: 전진출판사, 1990) 참조.

35) Lucian W. Pye, “유교적 레닌리스트문화에 있어서의 리더쉽: 중국, 북한 및 베트남,” 김달중·스칼라피노 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중국·북한·베트남」 (서울: 법문사, 1989), pp. 224~225.

36) 언어정책에 있어서도 레닌은 다양한 민족어를 장려하였다.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소련의 민족문화정책: 민족어정책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p. 76.

국이 전통적인 가치나 문화에 대한 敵對的인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이후의 정치과정이나 사회변화과정에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활용되고 전통문화가 잔존하고 있는 정도는 중국의 경우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사회주의 국가가 갖는 歷史的, 文化的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장기간에 걸쳐 文化的 同質性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 질적인 문화를 흡수하여 중국화시키는 文化的 包容力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서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이념을 절충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7)</sup>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초기에는 反傳統的인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점차로 전통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통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효율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7) 중국은 강력한 산아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男兒選好思想으로 인하여 인구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민공사시기에 祖上의 墳墓를 자손이 파헤치도록 하였음에도 여전히 祖上崇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환경하에서는 전통문화와 일정한 타협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 2.北韓의 政治社會化와 傳統文化

### 가. 北韓 政治社會化의 特性

북한에서는 정치사회화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사업’, ‘정치사상사업’, ‘정치사상교양’, ‘사상교양’, ‘사상사업’,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북한의 지배이념을 북한인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정치사회화가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북한은 劃一的 內容을 계획된 절차에 따라 인민들에게 內面化시키는 정치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다. 幼兒教育을 강조하고, 學科課程의 대부분을 김일성지배를 正當化하는데 할애하고 있으며<sup>39)</sup>, ‘사로

38) 도홍렬,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26. 김일성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라는 1958년 11월 20일의 연설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철저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전개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전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미 얻은 승리를 공고히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591. 따라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각종 교양은 정치사회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9) 인민학교 총 수업시간 3,451시간 중에 독립된 政治教育 시간이 304시간이며, 고등중학교 총 수업시간 6,742시간 중에 정치교육에 관한 과목의 시간 총계는 669시간이나 된다. 통일원, 「북한개요 92」 (서울: 통일원, 1992), pp. 332~333. 그러나 공식적인 정치교육 이외에도 歷史나 倫理 그리고 言語教育課程에서도 이념교육이 수행

청'으로 대표되는 靑少年組織을 운용하고 있고, '직총', '농근맹', '여맹' 등의 成人組織에 대부분의 주민을 가입시키고 있으며, TV나 라디오, 新聞 등의 매스미디어는 黨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정치사회화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은 일반적인 정치교양이나 교육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한데서 알 수 있듯이,<sup>40)</sup>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문학·예술작품을 정치사회화에 이용하고 있다.

制度的인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사회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조직적인 再社會化를 위하여 反復學習을 강조하고 있다.<sup>41)</sup>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한다는 것은 학습을 언제나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그것을 생활의 필수적 요구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학습을 매일 밥먹는 것처럼 생활의 필수적 요구로, 습성으로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2)</sup>

---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전체 교과과정에서 정치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0) 김일성,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1970년 2월 17일)," 「김일성 저작집 25」(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 17.

41) 김재영 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서울: 형설출판사, 1990), pp. 386~387.

42) 「로동신문」, 1985. 12. 18.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 학습은 정치이념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을 뿐 아니라, 反體制的인 政治定向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반복학습을 위하여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종 사회조직이 동원될 뿐만 아니라 김일성·김정일의 ‘로작’을 암송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sup>43)</sup>

둘째, 就學前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는 1947년 6월에 ‘보건국령 제5호’로서 「보육원 규정」을 발표할 정도로 취학전 교육을 중시하였으며, 현재 북한은 幼稚園教育의 일부분을 義務教育化하고 있다.<sup>44)</sup> 취학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들로부터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就學前 教育을 통하여 早期에 정치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킬 수도 있다.

셋째, 북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는 理論教育보다 實踐이 강조된다.<sup>45)</sup> 교과과정에는 勞動이 포함되어져 있어 학생들은 노동자계급 의식을 직접 경험하며, 軍事訓練도 받고 있다.<sup>46)</sup>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혁명유적지’ 參拜나 行軍 등을 통하여 지배이념을 體得하게

43)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교수의 북한생활체험기」 (서울: 연합통신, 1991), pp. 109~110.

44)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대해서는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1990), pp. 361~378; 허숙,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황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pp. 78~98 참조.

45) 은만금,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와 결과분석,”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서울: 통일원, 1992), pp. 29~30.

46) 도홍렬, “북한 청소년 사회화의 실태,” p. 123

된다. 이러한 실천적 정치사회화는 단순한 이론교양보다 정치이념의 확산과 심화에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문학·예술을 통한 사회화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화와 같은 경우는 김정일이 직접 제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중요한 작품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해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학습의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여가활동을 통해서도 정치사회화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정치사회화의 내용이 국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하였다. 建國부터 韓國戰爭 以前까지는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구호하에 反帝·反封建的 愛國民主思想을 강조하였으며, 1950년대까지는 노동계급의 계급의식과 黨性提高가 강조되었고, 1960년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世界觀과 集團主義 精神 그리고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교양에 중점을 두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主體思想에 기초한 사상통일을 강조하고 있다.<sup>47)</sup>

여섯째, 정치사회화의 내용에서 民族主義的인 요소가 부각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 자신이 民族文化遺産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

47) 강성윤,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155.

것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민족유산 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족유산을 잘 보존하여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을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새 민주조선의 새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sup>48)</sup>

이와 같이 김일성이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sup>49)</sup> 북한의 정치사회화의 내용에는 민족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사회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정치사회화의 방법보다는 내용에 있다. 즉 북한체제가 처해 있었던 조건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였으며 상황변화에 따라 내용을 변화시킨 결과 정치사회화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체제유지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나.北韓體制와 傳統文化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封建文化와 反動

48)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83.

49) 현종호,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 「근로자」 (1987. 3), p. 91.

文化라는 개념으로서 기존의 傳統文化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朝鮮時代 이래 전통적 가치인 封建儒敎道德, 封建儒敎思想 및 家族主義를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봉건유교도덕은 역대봉건통치배들의 책동에 의하여 우리나라 봉건사회에서 지배적인 도덕으로 존재하여왔으며 또한 근로인민대중의 생활 풍속까지 깊이 침투되었던 관계로 우리 인민의 사상정치생활과 료리도덕생활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sup>50)</sup>

반동적인 유교사상은 오랜 시기에 걸쳐 봉건지배계급에게 복무하면서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박았기 때문에 그 여독은 사회주의제도가 세워진 다음에도 오래동안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51)</sup>

가족주의에 물젖게되면 옳고 그른것을 가려보지 못하고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행동까지 하게 되므로 집단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약화시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방해한다.<sup>52)</sup>

실제로 북한에서 전통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傳統文化와 價値는 儒敎理念과 家父長的 權威主義에 토대를 두고

50)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282.

51) 위의 책.

52) 위의 책, p. 43.



있으며, 유교이념이나 가부장적 권위주의 모두가 사회의 기초단위라고 할 수 있는 家族關係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적 가치나 규범이 잘 드러나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대단히 進步的이다. 특히 女性의 不平等을 봉건적 잔재의 대표적인 예로 비판하면서 男女平等을 주장하였다.<sup>53)</sup>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 7. 30)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9월 8일에 채택된 헌법 제22조에는 “녀자는 국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남자와 동등하다”라고 남녀평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들을 통해서 男女差別, 戶主·戶籍制度, 強制結婚, 一夫多妻制, 蓄妾制 그리고 長子優待不均等相續制 등이 폐지되었다.<sup>54)</sup> 자유결혼을 권장하고 이혼을 자유화하고 남녀의 同等한 재산상속권과 분배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들이다.

특히 초기 북한의 가족관계 法令들은 家族보다는 婚姻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념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女性의 就業을 보장하고 育兒를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여성의 地位上昇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평등과 혼

53) 김일성도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날 조선여성들은 남존녀비의 낡은 봉건사상으로 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천대를 받아왔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이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06.

54)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pp. 300~301.

인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의 가족은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農村의 集團農場化도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46년의 土地改革으로부터 시작한 전통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는 1958년에 이르러 農業集團化의 완성으로 귀결되었는데 이는 社會構成員의 心理體系 및 文化構造의 변화도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私有財產權이 포기되고 가족이 경제적 단위로서 갖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相續權 및 家財權을 갖고 있었던 家主로서의 父의 역할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의 상징이던 老人들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의 하나로 전락하였다.<sup>55)</sup>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社會의 基礎單位였을 뿐만 아니라 政治經濟的 基礎單位였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상승과 집단농장화에 따라 북한에서 가족이 갖고 있는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와의 媒介 單位로서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직접 對面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문화구조와 가치체계가 崩壞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體制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족을 解體하려는 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가족의 解體나 質的 變化를 통하여 아동들과 기존의 세대인 부모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단절시킴으로서 新體制로 사회구성원들을 통합시킬 수 있기 때

55)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pp. 148~150.

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특히 여성의 平等保障이라는 형태로 가족 구조의 변화가 추구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남한에 비해 부족하였던 勞動力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을 가족으로부터 해방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둘째, 북한으로서는 남한과 대비하여 平等性을 부각시키는 것이 體制弘報에서 유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傳統文化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宥和的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문화는 민족문화유산 가운데서 략후하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문화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이 된다.<sup>56)</sup> 따라서 전통적 요소들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새로운 체제의 이념이 전통적 요소를 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김일성의 견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조선인민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부흥시키고 우리 나라 말과 문자를 발전시키며 점차 의무교육제를 실시할것...<sup>57)</sup>

56) “사회주의문화,”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334.

57) 김일성,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 1945년 8월 20일),”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263.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옹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며 새 민주조선의 새문화를 건설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며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일군들 속에서는 그릇된 편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sup>58)</sup>

지금 일부 학교들에서는 봉건유교사상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와 고전문학, 고전예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들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고전문학, 고전예술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로부터 나온 하나의 편향입니다.<sup>59)</sup>

이와같이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도 김일성은 傳統文化를 중요시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1970년대 이후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유희적인 입장이 公式的인 文件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政策的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초기의 토지정책을 들 수가 있다. 북한의 지배엘리트는 土地分配를 위하여 기존의 토지와 산림을 몰수하면서도 전통적인 親族組織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

58)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묘향산 박물관 휴양소 일군들과 한 담화,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저작집 5」, p. 283.

59)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 및 문화·예술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3.

여 門中所有의 墓地에 관련된 山林은 몰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sup>60)</sup> 따라서 建國 初期부터 북한에서는 傳統的인 價値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국가 建設期 이후 전통문화에 대하여 유희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북한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가족에 대해서는 점차로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1948년 憲法에는 婚姻의 保護를 강조하였으나 점차 “가정은 부모와 처자, 형제자매를 비롯한 육친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같이하는 우리 사회의 세포”가 되고,<sup>61)</sup> 1972년 憲法에서는 婚姻보다 家庭의 保護를 더욱 강조한다.<sup>62)</sup> 더욱이 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되어 1991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家族法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담당자를 母親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팔촌까지의 혈족과 사촌까지의 인척간에 결혼을 금하고 있다. 또한 合意離婚이 1956년에 폐지되고 裁判離婚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2회 이상의 이혼에는 物質的 負擔을 지우는 등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

60) 그러나 문중소유의 전답 등은 몰수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기반이 상실된 전통적인 친족집단은 점차 와해되었다. 최인학, “남북한 기층문화 전승실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3호 (1978), p. 185.

61) 김일성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연설, 1961년 11월 16일),”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339.

62)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p. 305.

드러지고 있다.<sup>63)</sup>

전통문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국가건설 초기에도 상대적으로 유희적이었으며 점차로 기존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전통적 가치가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척된 요소 중의 대표적인 것은 家族主義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村落共同體이다. 가족주의는 특히 反宗派主義를 배척하는 가운데서 더욱 비판받았으며, 공동체의식은 농촌의 再構造化를 통해서 타파되었다. 그러나 가족주의를 타파하면서도 血緣的 紐帶를 강조하고 있으며,<sup>64)</sup> ‘사회주의적 대가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형태로 변질된 가족주의가 점차 擴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여 기존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肯定的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북한의 독특한 社會·歷史的 環境과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反帝와 半封建을 강조하는데, 식민지를 경험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은 反帝에 더욱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日帝下 植民地 경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은 封建的 잔재가 아닌 帝國主義의 잔재였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과정을 통하여 資本主義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다고 한다면 혁명의 대상은

63) 大內憲昭, “法律かみた北朝鮮の家族, 社會, 國家制度,” 統一評論社, 「統一評論」, no. 319 (1992. 1), pp. 54~59.

64) 만경대혁명유자녀학원을 중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자본주의체제이고 타도해야할 세력은 자본가계급이 된다. 그리고 봉건적 지주는 副次的인 타도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분단의 결과 미국을 첫번째 적대국으로 삼았으며 한국전쟁을 통하여 反帝·反美 정서가 더욱 고양되었고 결과적으로 反帝國主義的 성향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과의 差別性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민족문화를 더욱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제국주의의 文化的 侵略으로 자본주의 반동문화의 한 형태인 대중문화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북한만이 民族文化를 主體的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65)</sup>

중소분쟁을 경험한 북한이 1955년 이후 主體思想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1970년대 이후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이 이루어진 것도 전통적 가치들이 재부각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권력장악 초기에 延安派와 蘇聯派를 숙청하는 과정에서 독자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던 김일성이 中蘇紛爭의 와중에서 民族主義的 성향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전통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게 만들었다. 또한 父子世襲이라는 특이한 권력승계는 전통적인 가치구조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문화를 더욱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傳統文化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경험하였던 葛藤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사회주의 건설이 가능하였다

65)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41~42.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權力世襲과 연관되어 전통문화에 대한 유희적인 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정치이념에서 뿐만 아니라,<sup>66)</sup> 家父長的 權威主義, 男女間의 不平等, 血緣主義 그리고 幹部와 住民間의 身分制的 差別과 같은 전통문화의 요소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적지 않게 잔존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67)</sup>

---

66) 북한의 지배이념인 주체사상이 전통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다는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후르카히로시(古田博司), “북한에 있어서의 유교전통과 주체사상의 전개.”

67) 최재현, “북한사회이념속에 전통적 요소,” pp. 118~119.



### 第 III 章 北韓映畫 分析

#### 1. 北韓映畫의 政治的 役割

영화도 문학·예술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영화가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포괄하는 문학·예술의 정치적 함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예술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政府가 아닌 黨이 문학·예술을 장악하고 있다. 문학·예술의 主題나 素材 그리고 流通까지도 黨이 간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관심도 높다.<sup>68)</sup> 또한 사회주의리얼리즘론에<sup>69)</sup> 입각하여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理念性이 문학·예술 작품 평가의 중요한 尺度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加담으로 最高指導者의 交替나 黨 路線의 변화 등 정치권의 변화가 문학·예

68) 예를 들어 레닌은 톨스토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Vladimir Il'ich Lenin, "L. N. Tolstoy," *Works of Lenin* XVI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0), pp. 323~327.

69)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엥겔스는 디테일의 충실함 이외에도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이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 Lee Baxandall and Stefan Marawski, trans. ed., *Marx &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A Selection of Writings* (St. Louis: Telos Press, 1973), p. 114.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해서는 C. V. James, 연희원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 (서울: 녹진, 1990) 참조.

술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sup>70)</sup>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문학·예술은 國家 특히 黨의 이념을 전파하는 宣傳道具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도 사회주의 국가 문학·예술의 일반적인 성격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북한에서 문학·예술을 관장하는 것은 政務院 산하의 文化部와 黨의 文化藝術部이나 黨 우선의 체제 특성상 黨 문화예술부의 역할이 더욱 크며, 黨의 宣傳煽動部도 문학·예술 창작에 관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 김일성도 문학·예술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근로대중을 애국주의사상과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문학·예술작품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큼니다.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투쟁심을 가지게 합니다.<sup>71)</sup>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교체가 없었기 때문에 權力構造 變化에 따

70) 중국의 경우 모택동의 문화혁명기의 문학과 등소평 이후 개방시기의 문학 변화에 대해서는 이충양, “중국의 문예정책,” 「중소연구」, 14권 4호 (1990/91 겨울) 참조.

71) 김일성,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1949년 7월 18일),” 「김일성저작집 5」, p. 105. 김일성이 문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항일유격대 시절부터라고 한다.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171~172; 림춘추, “혁명적 출판물에 대한 그이의 지도,” 「항일무장투쟁 회상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서울: 고추잡자리 판, 1988), pp. 70~71.

른 문학·예술의 성격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초기 派閥鬭爭過程에서는 문학·예술의 특성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북한 文藝界를 대표했던 日帝時代 카프세력의 得勢와 沒落은 남로당의 肅清 및 宗派鬭爭과 관련이 있으며, 1960년대 이후 항일 혁명문학의 대두는 김일성 중심의 權力鞏固化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sup>72)</sup>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자신이 문학·예술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하였기 때문에,<sup>73)</sup>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sup>74)</sup>

북한의 문학·예술이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학·예술의 기본적인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세가지 原則下에서 창작되고 있다.<sup>75)</sup> 黨性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당의 로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을 의미한다.<sup>76)</sup> 그리고 당성을 “로동계급의 혁

72) 김재용, “북한문학계의 ‘반종파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역사비평」, 16 (1992 봄), pp. 246~251.

73) 김정일의 경력변화에 대해서는 박규식, 「김정일평전」 (서울: 양문각, 1992), p. 99 참조.

74) 김정일은 1970년대 이후 김일성이 항일운동시절에 창작하였다고 하는 「피바다」, 「꽃파는 처녀」, 「성황당」 등의 작품을 혁명가극화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북한의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현재에도 1990년대의 대표적인 다부작영화인 「민족과 운명」의 현지도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로동신문」, 1992. 2. 6.

75)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p. 169.

명적 당과 그 창건자이며 령도자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개념 규정함으로써,<sup>77)</sup> 김일성 個人崇拜과 연관시킨다. 이러한 까닭으로 김일성의 個人史를 소재로 삼거나 김일성의 偉大性을 부각시키는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다.

勞動階級性은 “로동계급의 의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로동계급의 리익을 견절히 옹호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sup>78)</sup> 이러한 맥락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본성과 자본가계급의 착취적 본성”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는 함으로써,<sup>79)</sup> 反南韓·反美的인 성향의 작품창작을 유도하고 있다.

人民性은 “문학·예술이 철저하게 인민들의 사상과 감정에 맞도록” 창작하는 것을 의미한다.<sup>80)</sup> 인민성 부각을 통하여 일반 대중과의 일체감을 고양시키고, 대중들이 흥미있게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理念性과 藝術性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sup>81)</sup> 따라서 주민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북한의 文藝觀은 기본적으로 客觀的인 現實에 대한 忠實한 描寫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傾向性을

76) “조선로동당 6차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화보고(1980년 10월 10일),”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78.

77) 한중모,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1: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건설」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114.

78) 위의 책, p. 121.

79) 위의 책, p. 128.

80) 위의 책, p. 130.

81)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p. 172.

추구하여야 한다는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기본적 특성과 일맥상 통한다. 그러나 문학·예술작품이 黨보다는 김일성 중심의 북한의 권력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이후 항일혁명문학이 강조된 이래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장르에 상관없이 모든 문학·예술작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체제 특히 집권자에 문학·예술이 종속된 결과 북한의 문학·예술은 劃一性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김정일이 ‘종자론(種子論)’을<sup>82)</sup> 제기한 이후에

82) 종자론은 1972년에 발간된 「문학예술사전」에 처음 언급되었으나, 1973년에 김정일이 펴낸 「영화예술론」에서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발표된 북한의 모든 문학예술작품은 종자론에 따라 창작되고 평가받고 있다. 김정일이 강조하고 있는 종자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예술인들이 말하려는 기본문제와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며, ② 작가·예술인들은 생활에 대한 체험과 연구에 기초하여 그가 해명하려는 근본문제를 형상의 요소들과 유기적 연관 속에서 골라잡아야 하고, ③ 종자는 주제와 소재에 모두 관련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소재선택, 주제설정, 예술적 형상 창조의 전과정에 관련되며, ④ 소재란 아직 예술적 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생활현상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며, ⑤ 주제란 사상 미학적으로 전환된 생활 현상의 범주에 관한 문제이고, ⑥ 소재·주제·사상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단일한 개념이 요구되어지는 바 이것이 바로 종자인 것이며, ⑦ 종자에 있어서 기본은 사상에 두고 소재와 주제의 요소들은 사상적 알맹이에 의하여 제약되고, ⑧ 종자에 의하여 유기적, 전일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⑨ 종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인 것이며, ⑩ 좋은 종자를 고르려면 사물 현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는 思想的 核이 강조되어 이념적 획일성의 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북한의 문학·예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문학·예술의 정치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문학·예술은 여타 사회주의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支配理念을 확산하는 중요한 政治的 道具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김일성 및 김정일이 문학·예술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높기 때문에 문학·예술의 政治的 比重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문학·예술이 전파하고자 하는 이념적 내용은 당성과 로동계급성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의 중심은 김일성의 唯一 指導體制의 정당성과 김일성의 위대성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학·예술은 現權力構造를 正當化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인민성을 강조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문학·예술은 일반 인민들의 現實 및 情緒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大衆性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對抗文化(counter culture)의 존재가 불명확하기

---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하고, ① 종자의 새로운 맛과 독창성의 보장은 종자의 예술적 의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조건이며, ② 예술적 가공에 있어 예술적 세부들과 형상들을 종자에 집중시키고 복종시킴으로써 작품의 대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③ 주인공의 형상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제기하는 기본 문제의 예술적 해명에 알맞는 위치에 주인공을 놓고 성격적 특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72~188.

때문에<sup>83)</sup> 상대적으로 문학·예술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수용 정도는 더욱 높으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학·예술에서 특히 映畵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영화는 사회주의권에서는 가장 核心的인 藝術의 한 장르로 취급되고 있다. 레닌도 영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스탈린도 영화가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大衆煽動에 있어서 가장 有力한 武器라고 하고 있다.<sup>84)</sup> 이러한 지도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초기에 사회주의권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많은 영화가 창작되었고, 映畵理論이나 製作技法도 발달하였다.<sup>85)</sup>

83) 최근 북한에서도 靑少年非行과 犯罪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권력층 자녀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享樂을 추구하는 집단이 생겨났다는 분석도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2~1993」(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56~58.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의 文化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社會集團의 組織化가 전제되어야 하며, 설사 집단이 조직화되고 定型化된 文化를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下位文化(sub-culture)에 불과할 것이다. 下位文化는 主文化와 대치되는 對抗文化와 성격이 다르다. 下位文化는 對抗文化로 발전할 수 있으나 黨 주도의 文化樣態, 外部 情報의 遮斷, 매스콤 및 印刷施設의 國家掌握을 고려한다면 북한에서 對抗文化의 존재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84) 오프스니아니코프, 이승숙·진중권 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 원론」(서울: 이론과 실천, 1990), p. 231; 김기덕, “북한 영화의 제작기술 현황,” 「통일정책」, 5권 4호 (1979), p. 95.

85) 러시아 출신의 제작자 겸 이론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세르게이 아이젠슈타인(Sergei Eisenstein)을 들 수가 있다. 그는 영화창작에 주요한 기법들을 창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화를 직접 제작해서 현

사회주의체제에서 영화를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영화가 大衆的 波及力이 높기 때문이다.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였던 시기에 러시아에는 대다수의 農民들이 존재하였고, 이들의 文字解讀率은 지극히 낮았다. 國民들이 새로운 사회주의체제를 이해하고 국가건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政治社會化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의 조건하에서는 영화가 가장 효과적인 社會化의 媒體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技術的인 측면에서 동일한 내용의 大量複寫가 가능하고 一時에 大多數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영화를 관람시킬 수 있다는 점도 영화의 政治的 效用性を 증대시킨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영화가 제작되고 장려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영화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내포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의 영화도 사회주의 국가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特性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영화는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예술의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세계를 인식시키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sup>86)</sup> 이러한 견해는 김일성의 영화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

대 영화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이젠슈타인에 대해서는 Andrew J. Dudley, *The Major Film Theories*, 조희문 역, 「현대영화 이론」 (서울: 한길사, 1988), pp. 63~102 참조.

86) 한중모·김정용·김준규, 「주체적 문예이론의 기초 3: 문학예술형태」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97.



영화는 우리 당의 힘있는 직관적인 선전선동수단입니다. 영화는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줄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오랜기간의 력사적 사실들과 사건들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소설이나 신문보다도 낮고 무대의 제한을 받는 연극보다도 우월합니다. 영화가 여러가지 예술형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힘있는 대중교양수단이라는데 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sup>87)</sup>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영화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과 자신의 개인적 취향 때문에<sup>88)</sup> 영화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영화만큼 영향력이 큰 예술은 없습니다. 영화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군중을 대상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돌릴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며 기동적인 예술입니다. 영화는 생활을 생동한 화면을 통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누구나 내용을 쉽게 리해할 수 있습니다.<sup>89)</sup>

最高指導者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북한에서는 영화가 활발히 제작되고 있으며, 인민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頻度도 대단

87)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9.

88) 김정일은 1만 5천여편의 필름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영화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김정일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영사실 시설이 되어 있고 그는 거의 매일 밤 영화문헌고에서 필름을 가져다가 감상한다고 한다. 최은희·신상옥, 「최은희·신상옥납북수기: 김정일 왕국」 下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 108.

89) 「김정일선집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23.

히 많다.<sup>90)</sup>

일반적으로 영화는 수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탁월하다.<sup>91)</sup> 영화의 효과는 個人的인水準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북한과 같이 개인적 餘暇手段이 부족할 경우<sup>92)</sup> 社

90) 製作篇數를 살펴보면 1989년의 경우 예술영화가 35편, 기록영화가 39편, 과학영화가 52편, 아동영화가 19편으로 총 145편이나 된다. 「조선영화년감 1990」(평양: 문예출판사, 1990), pp. 436~450. 일년에 북한인민들이 영화를 관람하는 頻度가 150회가 넘는다는 주장이 있다. 김정옥, “북한 영화의 예술성과 사상성,” 「통일정책」, 5권 4호 (1979), p. 59. 그러나 공식적인 북한의 영화 관람자 統計를 보면 1989년에 총 184,109,000명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영화년감 1990」, p. 451. 이를 북한의 인구 2천 3백만 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8회 정도 영화를 관람한 것이 된다. 따라서 150회 이상 관람한다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50회 이상이라는 것에서는 公式的으로 공연장에서 관람하는 것 외에 집에서 TV 등을 통해서 영화를 감상하거나 교육장에서 관람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8회 정도 공연장에서 영화를 감상한다고 하더라도 남한 국민들의 영화관람 횟수가 年平均 1회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북한인민들은 영화를 대단히 많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한에서는 VTR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집에서 영화를 보는 빈도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V를 통한 영화감상은 관람의 連續性, 集中度에 있어서 극장관람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呼訴力이 약할 수 밖에 없다.

91) 관람자를 압도하는 스크린의 크기, 관람자 시선의 고정, 영화관내의 어두움과 화면의 밝음의 대비 등으로 대부분의 관람자들은 영화의 내용에 몰입하게 된다. 박명진, “영화산업의 욕망관리체제: 스타제도,” 「문화과학」, 3호 (1993 봄), pp. 151~154.

92) 북한의 일상생활은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학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제33

會的인 次元에서 영화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주민들은 영화를 자주 관람하고 있으며, 국가는 公開的이고 公式的으로 영화를 대중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sup>93)</sup> 북한에서 영화의 政治的 役割은 더욱 크다.

북한영화도 기본적으로 문학·예술이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영화는 북한의 支配理念을 확산하는 道具이며, 社會文化的 統制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sup>94)</sup> 그러므로 정치사회화라는 과점에서 보면 북한영화가 중요한 매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成人들을 위한 사회화의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산업사회의 성인들에게 사회화 매체로서 매스미디어, 특히 TV가 중요하지만 북한의 TV는 上映時間도 짧고, 受像機 普及率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sup>95)</sup> 또한 방송 내용도 뉴스와 해설 등 報道에 치중하

---

조, 1978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채택,”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234. 여가생활의 시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집체예술 관람과 같은 집단여가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개인적인 여가생활의 수단은 더욱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중요한 휴식이며 즐거움이 되고 있다. 백옥인, “북한의 일상생활,”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75~176; 통일원, 「북한개요 92」, pp. 291~292.

93) 민병남, “영화예술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 「조선영화」, 237 (1993. 3), p. 26.

94) 북한영화와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영화의 특성과 사회통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세미나, 1993. 9. 23) 참조.

고 있어서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V프로그램 편성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중앙방송」의 경우는 30.8% 이고 주말에만 방송하는 「만수대 TV 방송」은 47.2%로서 TV매체에서도 영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sup>95)</sup>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영화는 정치사회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2. 분석틀과 分析對象 作品

### 가. 분석틀

정치사회화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텍스트로 북한영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傳統文化의 役割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표출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할

95) 북한에는 조선중앙TV방송국이 있으며 주당 총 47시간 30분 평일에는 오후 5~11시, 공휴일에는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3~11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방영하고 있다. 내외통신사 편, 「북한용어 250선집」 (서울: 내외통신, 1992), pp. 156~157. 현재 북한에서 TV수상기 보급률이 100%라고는 하나 연산 24만대라는 생산규모를 고려한다면 지역적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흑백 TV수상기에 비해서 칼라 TV 수상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통일원, 「북한개요 92」, p. 363.

96) 강현두, “북한의 방송,” 유재천 편, 「북한의 언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9), p. 171.

필요가 있다.

### (1) 分析基準

북한의 영화는 문학·예술의 한 장르로 黨의 理念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가 전통문화를 부각하는 작품을 찾아서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북한영화에서 표출되는 전통문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내용에서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를 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傳統文化의 強調與否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네가지를 분석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家族主義의 강조여부이다. 한국의 전통문화의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가 가족의 강조이다.<sup>97)</sup> 전통적인 儒教倫理도 家族倫理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忠보다 孝가 더 강조된다. 가족주의를 중시하면 思考單位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된다. 그러므로 행위의 동기도 個人的 이해보다는 家族的 이해에서 유발된다. 동시에 행위 및 타인에 대한 評價基準도 業績보다도 血緣이라고 하는 歸屬的 특성에 두게 된다.<sup>98)</sup> 가족주의는 사회주의에서 중시하는 集團主

97) 가족주의에 대해서는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서울: 개문사, 1985); 조혜정, “한국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집 (1985) 참조.

98) 일본의 家의 개념이 경제적 단위인 家口(household)인데 비해서 한국의 가족은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가족(family)의 성격이 강하다. 中根千枝, 최길성 역, 「일본의 사회구조」(서울: 형성, 1985), pp.

義와 배치되는 것이며,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封建的 殘滓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주의의 강조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분석할 것이다.

- ① 家族에 대한 態度: 가족을 중시하는 정도
- ② 行爲의 基準: 가족이해와 개인적 이해
- ③ 血緣에 대한 強調與否

둘째, 家父長的 權威主義의 존재여부이다.<sup>99)</sup> 한국의 傳統的 權威는 가부장제에 의존하였다. 아버지를 근간으로 하고 아들로 이어지는 父系血統을 중심으로 어머니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近代的 合理性보다는 가족의 位階上으로 권위를 부여받고 행사하는 가부장적 권위구조는<sup>100)</sup> 가족단위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 까지 확대된다.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平等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價値體系와 배치되는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① 아버지에 대한 態度

---

34~36.

99) 한국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조혜정,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참조.

100)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 I (eds.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p. 231 참조.

## ② 家族內 位階構造

## ③ 어머니의 役割

셋째, 男女의 役割 分業 형태이다. 女必從夫로 표현되듯이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는 것은 한국 전통문화의 주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남성은 對外的인 활동을 그리고 여성은 家事勞動을 책임지는 性的인 分業構造가 정착되어 있었다.<sup>101)</sup> 그러나 현대사회는 귀속적 지위에 의하여 차별받아서 안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性的 差別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체제에서는 性的인 差別을 더욱 반대하고 있다.<sup>102)</sup>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대상 작품에서 男女關係 및 女性의 役割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在來慣習과 民俗에 대한 태도이다. 전통 名節에 대한 태도 및 配偶者 選擇 또는 結婚과 같은 행위에서 재래적인 관습이 어떻게 維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전통문화에 대한 복한의 태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01) 이효재,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이효재 외, 「한국가족론」 (서울: 까치, 1990), p. 21.

102) 특히 엥겔스는 私有財産制度의 성립이 性的 搾取를 유발하였으며, 사회주의체제의 성립이 性的 平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rederick Engels,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In the Light of Researches of Lewis H. Morgan*, pp. 468~593 in vol. 2 of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9).

## (2) 분석초점

영화는 綜合藝術로서 대본과 연기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활용, 미술과 음악 효과까지 결합되어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영화는 정지가 아닌 움직이는 動畫(motion picture)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하여 時間과 空間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sup>103)</sup> 따라서 영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갖고 있는 모든 개별적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들을 다시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영화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므로 몇가지 분석초점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臺詞를 분석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북한영화는 대사에 대한 依存度가 높으며, 주인공의 獨白이 많은 반면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의 抽象的 技法에 의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비중이 상관없이 대사에서 표출되고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登場人物들의 態度를 분석초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에 대한 태도, 체제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行爲樣態를 분석하여 전통문화적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셋째, 영화에서 主題를 전달하는 방식을 분석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관람자들에게 주제를 전달하기 위하여 어떤 情緒的 次元을 활

103) Joseph M. Boggs, *The Art of Watching Films*, 이용관 역,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서울: 제3세계사, 1991), p. 21.



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감정에 호소하는가 논리적 차원의 이성애 호소하는가 그리고 주제전달을 직설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 素材를 또 다른 분석초점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소재 자체가 전통문화와 연관이 있는 작품들에서 소재를 활용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가 具顯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分析對象 作品

북한의 영화는 기록영화, 예술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sup>104)</sup> 본 연구에서는 이중에서 남한의 劇映畫에 해당하는 예술영화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기록영화나 과학영화 그리고 아동영화의 제작비율이 예술영화와 비슷하고 광범위하게 감상되지만, 大衆藝術에 부합하는 것은 예술영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05)</sup>

지배이념을 확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북한영화의 특성상 예술영화의 주제들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製作·上映되는 영화들을 소재별로 검토하면 북한체제의 優越性을 홍보하는 영화, 김일성의 抗日革命運動을 소재로 하는 영화, 歷史的 事件을 소재로 한 영화, 韓國戰爭 時期를 무대로 한 전쟁영화, 勤勞意慾을

104) 최척호, 「북한예술영화」, p. 36.

105) 각주 90 참조.

고취시키기 위한 영화, 남한의 否定的인 측면을 묘사한 영화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소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북한체제의 優越性과 김일성의 領導力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제에 따라 분석대상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초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소재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들을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작품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을 다음과 같다.

○ 성장의 길에서(1·2부 1965; 영화문학 백인준; 연출 1부 전운봉, 2부 오병호·박창환·정규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4·19 전후의 남한사회를 무대로 大學生들이 이승만 정권의 腐敗에 항거하는 과정을 소재로 하고 있다. 1부에서는 남한의 대학생인 주인공이 험벗은 民衆과 부패한 支配層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4·19를 주도한다. 2부에서는 주인공이 투옥되어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4·19혁명의 한계를 統一運動으로 극복하여야 한다고 깨닫는다. 당시 남한사회의 부패 및 민중의 결집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 그리고 자주성없는 남한의 지배집단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 유격대 5형제(1·2부 1968, 3부 1969; 영화문학 박승수; 연출

최익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日帝時代 滿洲에서의 遊擊隊活動을 소재로 한 영화로 5형제가 유격대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5형제의 둘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큰형이 유격대의 요원으로 활동하다 日軍에 의하여 총살되자 동생들과 함께 유격대에 참여하여, 일본군을 격파하고 해방구를 확대해간다. 유격대활동중의 전투와 해방구에서의 활동, 일제의 탄압 및 정치적 각성과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1979):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암살하는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안중근이 정치적으로 覺醒하는 과정 그리고 당시의 民衆들의 反帝國主義的인 의식이 묘사되고 있으며, 안중근이 행위가 個人的인 次元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안중근의 한계는 새로운 인물의 기대로 연결되며, 이와 같은 인물로 김일성이 暗示되고 있다.

○ 사랑의 노래(1982; 영화문학 민순실; 연출 림창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제대군인인 여주인공은 평양산원의 看護士로 취직하고 성실하게 患者를 돌보는 과정을 그린 영화이다. 주로 평양산원을 비롯한 醫療 및 福祉施設의 훌륭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공의 戀愛 및 結婚過程도 묘사되고 있다.

○ 언제나 한마음(1982; 영화문학 김희봉; 연출 리재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한국전쟁시기 수류탄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여주인

공이 미군의 폭격과 간첩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다른 勞動者들을 설득하여 공장을 再建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공장의 직장장이었던 남편은 파괴된 공장의 火爐를 재건하기 위하여 耐火벽돌을 구하러 갔다가 간첩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간첩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공장의 작업을 계속 방해하지만 주인공은 이를 극복하고 수류탄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

○ 청춘의 심장(1982; 영화문학 리춘구;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3대혁명소조원인 여주인공은 造船所에서 新技術을 개발하여 외화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조선소의 기술자는 힘든 과정을 피하여 도시로 이주해가고 직장내 다른 사람들은 현체제에 만족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核心部品을 개발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실험을 감행한다. 위험한 실험을 통하여 수입하던 부품을 개발하여 外貨節約 및 船舶의 建造 및 修理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다.

○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1983; 영화문학 김명기; 연출 림참범; 왕재산창작단·조선예술영화촬영소): 貨物運搬을 책임진 여주인공이 갖은 난관을 극복하고 정확한 날짜에 발전설비를 현장에 運送하는 과정을 그렸다. 주인공은 정확한 날짜에 화물을 운송하기를 요구하나 운전수와 조수는 整備不良, 部品不足 등을 핑계로 운송을 지연시킨다. 이에 여주인공은 직접 부품을 구하고 막힌 길을 뚫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화물 운송을 완수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수와 조수는 여주인공의 행동을 통하여 안일한 자신들의 태도

를 반성한다.

○ 철길따라 천만리(1984; 신필름): 주인공이 해방 이후에 機關士로서 국가건설과정에 몰두하고 나이가 들어서 同僚의 아들 機關사로 만드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은 일제하의 철도 機關사의 조수로 근무하였으나 반일적인 행위를 한 것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한다. 해방 후 석방된 주인공은 機關사자격을 획득하고 社會주의 조국건설에 매진한다. 전쟁시기에는 美軍의 포로가 되어 軍需物資 운반을 강요받으나 미군들을 처치하고 미군의 화물을 파괴한다. 자신을 보살핀 선배 機關사가 전쟁중에 죽자 그의 아들을 찾아 아낸 주인공은 대학가기를 원하는 동료의 아들을 설득하여 아버지의 代를 이어 훌륭한 機關사가 되도록 인도한다. 부분적으로 일제의 탄압, 한국전쟁 그리고 미제의 간첩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영배 배우를 쫓아다니는 허영기있는 딸과 동료 아들과의 연애편경도 사되고 있다.

○ 장산리 녀성들(1985; 영화문학 리춘구·홍진숙; 연출 김덕왕재산창작단·조선예술영화촬영소): 韓國戰爭 時期 後方에 進인 여성들이 軍糧米를 조달하기 위하여 농사에 몰두하는 과정 過程인 영화이다. 미군이 爆撃을 계속하여 창고가 불타고 農地 손되는 등 고난을 겪지만 여성들이 합심하여 增産을 이룩한 過程에서 간첩들은 남편들이 전사하였다는 거짓 電報를 배부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유발하지만, 주민들을 이를 극복한

○ 개척자들(1부 1984, 2부 1985; 영화문학 조현동; 연출 김영호, 조선예술영화촬영소): 韓國戰爭 以後에 군에서 제대한 주인공이 백두산 지역에 새로운 농장을 건설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淺薄한 지역에서 주인공은 業績主義와 形式主義에 집착하는 지배인과 농장건설을 방해하는 미제의 간첩들과 갈등하면서 聖地인 백두산 기슭에 대규모 농장을 건설한다. 1부에서는 전쟁기간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전쟁 이후 시기가 대상이 된다. 주인공이 방해공작과 자연적인 어려움에도 농장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은 백두산이 김일성이 활동하였던 혁명유적지였기 때문이다.

○ 산정의 처녀기사(1986): 광업소의 기술자인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의 懷疑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生産性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위대한 품(1·2부 1986; 영화문학 김영준; 연출 오병초; 왕재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해방 직후 김구가 통일을 협의하기 위  
여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및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된  
는 내용의 영화이다.

○ 군당지도원(1987; 영화문학 홍진숙; 연출 이경진): 君黨指導  
로 농촌지역에 배치된 주인공이 干拓事業을 통하여 農作物의  
을 倍加시키는 과정을 소재로 하였다.

○ 도라지꽃(1987; 조선예술영화촬영소): 山間地域을 개발하여 樂園을 건설하는 여주인공의 일생을 그린 영화이다. 남자애인은 힘든 일을 기피하여 도시로 떠나지만 여주인공인 송림이는 마을주민들과 합세하여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과 收益事業에 몰두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여주인공의 동생은 언니의 뒤를 이어 고향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만들고 도시로 떠났던 남자는 老後에 아들을 데리고 귀향한다.

○ 려명(1987; 영화문학 백인준; 연출 리재준; 백두산 창작단·보천보창작단):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의 일생을 그린 영화이다.

○ 전사의 숨결(1987; 영화문학 최용수; 연출 채풍기; 월미도창작단·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建設現場에 투입된 군인들을 위하여 평양의 시설 좋은 병원의 의사로 채용된 여의사가 현장의 軍醫로 복귀하는 과정을 그렸다. 女醫師가 제대 후에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이 만류한다. 그러나 군인들이 자신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식구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한다.

○ 기다려주오(1987; 백두산창작단):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일대기이다.

○ 혁명전사(전·후편 1987; 영화문학 송상원; 연출 류호선; 백

두산창작단·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 마음에 드는 청년(1988): 군에서 제대한 주인공은 연구소와 같은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上下水道工이 되어 주민들의 안위를 보살피는 내용의 영화이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동생의 직업에 불만을 갖고 轉職시키려는 누이와 주인공의 직업으로 여동생과의 결혼은 반대하는 오빠와 갈등상태에 빠지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여 결혼에 성공한다.

○ 영생(1988; 영화문학 송상원; 연출 류호선; 백두산창작단·월미도창작단·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의 생애에 대한 영화이다.

○ 숲속의 갈림길(1990; 영화문학 리세일; 연출 리승호; 왕재산창작단·조선예술영화촬영소): 주인공이 林業所長으로 승진하여 아버지가 개간하던 숲에서 벌채를 하는 내용이다. 험준한 지역적 특성으로 벌채를 반대하는 支配人과 技士가 등장하여 주인공과 갈등한다. 지배인은 伐木이 손쉬운 지형을 선택하기를 종용하나 주인공은 循環伐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山勢가 험한 지형에서 벌채를 시도하고 벌목한 나무들을 물길을 통해 운반하는데 성공한다.



○ 편지(1990; 영화문학 김국성; 연출 김길인; 대흥단·조선예술영화촬영소): 주인공인 女教師는 남편의 근무지인 都市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農場을 건설한다. 주인공이 大學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농사짓도록 설득하고 黨員으로 성장시키는 내용이 중심이다. 학부형들은 대학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여교사를 비난하고 도시의 대학교수인 남편도 부인이 같이 지내기를 원하지만 주인공은 학생들과 淸心하여 농장을 일구고, 남편도 부인 곁으로 돌아온다.

### 3. 北韓映畫에서 表出되는 傳統文化

#### 가. 家族主義

북한영화에서 가족주의적 성향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유격대 오형제」는 제목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이 모두 抗日遊擊隊가 되는 내용의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부각되는 가족주의적 특성은 兄弟愛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큰형만이 유격대원이고 동생들은 청년의용군과 적위대활동을 하고 있으나 동생들은 형과 같이 유격대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격대원이었던 큰형이 日本軍에 잡혀 銃殺당하게 되고, 둘째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遺言을 남긴다.

“준혁아 나는 비록 떠났지만 내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해주기를 바란

다. 너는 집안의 기둥이 아니냐? 너희 행동이 혁명앞에 정직해야 동생들이 따를 것이 아니냐? 네가 온 집안을 혁명화해야 한다.”

형의 죽음은 동생들을 각성시키고, 동생들은 진정한 유격대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유격대원이 된 이후 각자 다른 부대에서 전투에 참여하던 형제들이 遭遇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일본군의 습격으로 잃어버렸던 손자를 할아버지가 찾아 해매고, 유격대 형제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찾아감으로써 형제들은 힘을 얻는다.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은 「도라지 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주인공인 송림의 애인은 都市에 가서 편안히 살기를 끈질기게 요구하지만 송림이는 부모도 없이 홀로 남을 동생이 걱정되어 애인을 쫓아가지 못한다. 또한 주인공이 산사태로 죽은 후에 송림이를 버리고 떠났던 옛애인의 아들이 귀향하자, 송림의 동생은 언니의 애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을에 정착하고자 하는 青年을 따듯이 보살피고 적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베푼다.

「개척자들」에서는 美軍의 爆擊으로 어린 형제를 데리고 농장에 정착하려는 青年이 등장한다. 농장의 지배인은 동생들을 託兒所로 보낼 것을 요구하나 청년은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본다. 청년이 간첩에 의해 살해당하자 동네 사람들은 죽은 청년의 동생들을 탁아소와 보육원에 보내는 대신에 각자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살핀다.

「편지」에서는 농촌에 남아있는 부인과 도시에서 근무하는 남편

과의 결합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마지막에 부인의 근무지에 特別學級을 개설하여 남편이 근무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가족주의적 경향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회주의 이념을 갖게 되거나, 이를 실천하는 動機가 가족에서 비롯되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청년」에서 주인공이 남들이 꺼려하는 상하수도공이 되기를 결심하는 데는 어머니가 자부심을 갖고 같은 일을平生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항일혁명운동과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에서 民族意識을 자각하고 遊擊隊員이 되거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원인은 家族構成員이 일제에 殺害당했거나 미군의 폭격에 犧牲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가극으로 유명하나 영화로도 제작된 「피바다」(1969)에서는<sup>106)</sup> 어린 동생 을남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항일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며, 「꽃파는 처녀」(1972)에서<sup>107)</sup> 여동생이 지주에 의하여 눈이 멀게 된 것이 주인공이 抗日意識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가족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血緣의 강조를 들 수 있다. 북한영화에서 혁명가족을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들은 혈연의 중요성을

106) 「피바다」는 영화로는 1969년에 제작되었으며, 혁명가극으로는 1971년에 공연되었다. 주요 작품을 다양한 장르로 再創作하는 것은 북한 문학·예술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김문환, “북한연극의 특징: 체제적 접근,” 권영민 외,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p. 336.

107) 혁명가극으로는 1971년에 공연되었다.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려명」은 김일성의 아버지인 김형직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기다려주오」는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을, 그리고 「혁명전사」 및 「영생」은 김일성의 동생 김철주를 소재로 한 영화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꽃피운 사랑」은 김일성과 김정숙이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 김정일의 탄생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김일성 家系의 위대성을 부각하기 위한 작품들으로써,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血緣主義的인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 나. 家父長的 權威主義

가부장적 권위주의에서는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이며, 아버지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구조가 성립된다. 「유격대 오형제」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자식들의 意思決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식들은 아버지의 의사에 절대 服從하고 있다. 또한 평범한 農夫인 아버지가 유격대원인 아들들에게 戰略戰術까지 지도한다.

「사랑의 노래」에서는 몸이 허약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손주 소리를 자주하였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出産을 감행한다. 배우자 선택이나 직장 선택에 있어서도 아버지 혹은 오빠의 결정이 중요하다. 「전사의 숨결」에서 딸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허락을 받고서야 직장을 옮기며, 직장상사는 “아버지가 허락하셨는지”를 물어본다. 「마음에 드는 청년」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여주인공이 오빠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家父長的 秩序를 표현하는 것으로 父子間의 職業承繼를 지적할 수 있다. 「철길따라 천만리」에서는 부자가 기관사가 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인 승규는 전쟁중에 죽은 동료의 아들을 애타게 찾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였다. 동료의 아들을 찾아낸 승규는

“너를 찾아 헤매었다. 너를 찾아 아버지의 대를 잇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한다. 대학가기를 원했던 동료의 아들도

“난 기관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내용은 「숲속의 갈림길」에서 볼 수 있다. 임업소장인 주인공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山林資源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에 희생된 아버지를 回想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주인공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판을 지키게 되었다”고 결심한다. 이러한 주인공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칭찬을 한다.

가족 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장이나 단위노동장에는 전체의 意思를 결집하고, 異見을 조정하는 연로한 男子老人이 등장하며,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求心點이 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군당지도원」(1987)에서는 농장의 노인이 干拓事業의 가능성과 방법을 지도원인 주인공에게 지도하고 있다. 「개척자들」에

서는 노인이 지배인과 주인공의 갈등을 仲裁하고 주인공의 精神的 支柱가 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농기구를 조달하는 방안을 알려준다. 「언제나 한마음」에서는 주인공인 애순이 부지배인으로부터 모함을 받아 세포위원장인 노인이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작업인 不發彈 제거를 선도하고, 노동자들이 좌절할 때마다 이들을 격려한다. 「숲속의 갈림길」에서도 주인공이 개발하여야 할 산림을 지적해주는 노인이 등장하며, 그동안 잘못된 벌목작업을 비판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아버지와 비교할 때 어머니가 公式部門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작품은 드물다. 어머니는 취사나 양육 등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적인 일에 몰두하는 남편의 健康과 전쟁에 참여한 자식의 安危를 걱정하는 것이 주된 일이 된다. 기본적으로 어머니는 家族內에 갇혀있는 사람이고, 가족내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心理的 緊張解消 정도의 부차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반면에 아버지는 “늘 일에만 몰두하고, 가정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식의 장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아버지의 優越的 地位는 가족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경우에 잘 드러난다. 配置構造를 보면 아버지를 中心으로 자식들이 배열되고 있다. 때로는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서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자식들은 바닥에 앉기도 하며, 안쪽 방에 혼자 앉고 자식들은 바깥 방에 앉는다. 어머니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자식들보다 外廓에 앉거나 서성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들이 잔치를 벌이는 장면에서 아버지나 자식들은 음식을 먹으며 방안에 앉아 있으나, 어머니

는 음식을 하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시중을 든다.

慈悲로운 아버지 像은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기제이다. 아버지는 慈悲롭고 자식은 이에 感動한다. 이러한 부자관계는 家族 혹은 集團內에서도 두드러지지만 김일성이 등장하거나 언급할 때도 적용되고 있다. 「위대한 품」은 제목 자체가 암시하고 있듯이 김구가 김일성이라는 자비로운 인물의 품에 안긴다는 것이다. 「장산리 녀성들」에서는 김일성이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건빵을 찾아서 건네주고 수건으로 코를 닦아준다. 김일성을 만난 인물들은 모두 눈물부터 흘리고, 김일성에 대한 대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말들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가슴아파 하시겠습니까”, “심려가 크실 텐데”, “장군님의 건강에 누가 된다” 등이다. 따라서 죽어가는 노인이 아껴온 꿀을 김일성에게 갖다주기를 부탁하기도 하며,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헤어졌던 부모와의 相逢에 감격하거나 부모님을 걱정하는 孝子の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다. 男性 中心의 男女關係

男性을 중심으로 하는 男女關係도 북한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언제나 한마음」의 주인공 애순이는 공장의 직장장이었던 남편이 火爐를 만들 수 있는 耐火벽돌을 구하려다가 간첩에 의해서 사살되자 남편의 遺志를 이어서 공장재건에 앞장선다. 그리고 공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편의 遺言을 되살리고 마음을 굳게

다져 난관을 극복한다.

「장산리 녀성들」에서는 전쟁에 나간 男便들을 위하여 농사를 짓는 아내들이 등장인물의 중심이다. 이들은

“피흘리고 싸우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아버지들이 돌아오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농사일에 몰두한다. 「성장의 길」에서는 화려한 上流社會의 文物에 익숙했던 여성이 의식있는 남성을 만남으로 인하여, 남한사회에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고 반정부투쟁에 나서게 된다.

여성을 남성에 從屬된 客體로 묘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장산리 녀성들」에서는 미국의 間諜인 우체부가 남편이 전사하였다는 거짓 통보를 하여 여성들을 좌절시킴으로써 농장활동을 방해하려고 하고, 이에 속은 여성들은 절망하고 가출을 하거나 노동을 포기한다. 「철길따라 천만리」에서 여주인공 정희는 애인인 승규가 鐵道機關士이기 때문에 철도차장이 되기를 결심한다.

또한 여성은 合理的인 思考가 부족하거나 虛榮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전사의 숨결」에서 남편은 지방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나 아내는 남편을 평양으로 전근시키기를 기도하고, 남들보다 화려하게 살기만을 추구한다. 「철길따라 천만리」에서 주인공의 딸은 기관사가 되려는 애인에게 불만을 갖고 바람둥이 映畫俳優를 쫓아다닌다. 따라서 남편은 “일찌기 당신을 깨우



치지 못한게 나의 잘못이오”(장산리 녀성들)라고 토로하고 여성들을 引導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영화에서는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어 專門分野나 肉體勞動分野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작품이 많다. 山間을 개척하는 「도라지꽃」, 造船所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청춘의 심장」, 鑛業所의 케이블카를 완공하는 「산정의 처녀기사」, 發電設備 運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 教師이면서 농장의 지도원으로 농장을 가꾸는 「편지」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들 영화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남성들의 잘못을 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항상 여성들은 다소곳하며, 부끄러움을 잘타는 인상을 유지하고 있고, 직설적인 비판을 삼가한다. 심지어 여성들이 갖는 힘의 원천을 눈물이라고 김일성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등장한다(장산리 녀성들).

“원래 조선여인은 눈물이 많습시다. 가슴속에 눈물이 강물처럼 차있읍니다. 여인의 눈물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며 그것은 동정이고 여인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主題歌도<sup>108)</sup> 남자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는 強하

108) 북한영화에서는 음악의 활용이 매우 빈번하다. 평균적으로 한편의 영화에서 4~5곡 정도 영화중간에 주제가 독립적으로 삽입된다. 박명진, “남북한 접근에 있어서 영화예술의 기여가능성,” 「분단국가의 문화통합」 (국토통일원 주최 제10차 한·중학술회의, 1989), p. 115.

고 莊重한 음악이 나오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애처로운 短調가 중심이 된다.

男女間의 性에 따른 역할 분업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항일 유격대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다. 이와 같은 영화에는 남녀가 같이 유격대원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해방시킨 住民들을 위무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 또한 취사나 군복 제작 등의 補助的인 역할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指揮者이고 戰鬥兵으로 묘사되고 있다.

#### 라. 在來慣習들의 持續

在來慣習을 유지하고 있는 장면도 북한영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유격대 오형제」에서는 단오날에 解放地域에서 대규모 잔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자들」에서는 설날이 중요한 명절로 취급되고 있다. 「철길따라 천만리」에서는 오랜 동안 찾던 동료의 아들을 만나게 되자, 먼저 아버지의 무덤에 성묘하도록 하였으며, 주인공의 회갑날에는 잔치를 벌인다. 또한 「장산리 녀성들」에서는 ‘봄맞이’ 농사를 강조한다. 또한 노인들을 恭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名節을 포함하여 잔칫날이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추는 춤의 侍衛도 傳統的인 形式을 유지하고 있다.

재래적인 관습이 두드러지는 것 중의 하나가 結婚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청년」, 「사랑의 노래」 등에서 남녀가 호감을 갖고 있으나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中媒者가 있어야 한다. 그

리고 가족의 同意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때로는 가족의 반대로 결혼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전 처녀의 純潔이 문제가 되고(철길따라 천만리), “처녀는 밤이슬을 맞으면 안된데요”(숲속의 갈림길)라고 생각한다.

言語에 있어서도 노인들은 처음보는 젊은이에게 下待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남성이 여성들에게 반말을 하지만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언어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北韓映畵에서 表出되는 社會主義的 要素 및 傳統的 要素

일반적으로 문화란 사람이 사회의 構成員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습득한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의 複合的 總體라고 할 수 있다.<sup>109)</sup> 이러한 문화는 唯物論的 입장을 견지하는 마르크시스트 관점에서 보면 上部構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生産樣式과 같은 物的 土臺에 비교하여 副次的인 것에 불과하다.<sup>110)</sup>

그러나 실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하였던 레닌은 부르조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부르조아의 문화를 극복할 필요성을 느꼈

109) Milton Singer, "Culture: The Concept of Culture,"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The Mamillan Company & Publishers, 1968), p. 527.

110) "Culture," in Tom Bottomore, et al.,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Publishers Limited, 1983), p. 109.

고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階級文化를 중심으로 하는 文化革命을 추구하게 되었다.<sup>111)</sup> 이와 같은 배경에서 배태된 社會主義 文化는 資本主義 文化와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 문화가 이념과 결합된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문화의 정치적 역할이 중시된다는 점이고, 둘째, 계급문화를 강조함으로써 문화의 투쟁성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政治와의 聯關性이 사회주의 문화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한다고 한다면, 鬭爭性이라는 특성은 사회주의 문화의 내용을 특정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문화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주의 이념 확산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사회주의 문화의 내용은 反封建과 反資本主義(혹은 反帝國主義)라고 할 수 있다. 반봉건주의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封建的 身分關係이다. 性(gender)이나 出身成分과 같은 귀속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차별적 분배를 부정한다. 그리고 反資本主義的 입장에서 資本家 集團을 비판하고 私有財產을 부정하는 동시에 제국주의 국가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문화도 사회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문화를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및 정

---

111) Vladimir Il'ich Lenin, "Two Culture in Every National Culture," Robert C. Tucker, ed., *The Lenin Anthology*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75), pp. 654~655.

신적 재부의 총체이며 문화는 사회발전의 소여단계에서의 기술적 진보와 생산의 발전 및 교육, 과학, 문학·예술 등의 발전수준을 표시하는 것”으로 概念定義하고 있으며,<sup>112)</sup> 사회주의 문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전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그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복무하는 것이며 착취와 억압을 청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13)</sup> 이러한 맥락에서 反帝·反封建의인 문화를 지향하고 선진 문화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는 主體理論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sup>114)</sup> 이와 같은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의 원칙은 영화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문화건설은 人間과 社會의 改造事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에서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인간상이 그려지고 있다. 개인보다는 집단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생활하고 노력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여 사회주의적 인간상의 典型을 보여준다.

둘째, 反帝國主義的 이념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조선민족을 收奪하는 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특히 미국은 부르조아 반동세력을 教唆하고 있으며, 전쟁중에는 민간인 및 어린이까지 폭격대상으로 삼는 비인간적인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나 일본인은 잔인한 인

112)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p. 365.

113) 위의 책, p. 496.

114)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pp. 4~6.

물들로 묘사되고 있다.

셋째, 勞動 특히 肉體勞動을 중시하고 있다. 농업, 임업, 광업뿐 아니라 도시의 청소작업 등 육체노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精神勞動이 경시된다. 또한 노래, 무용, 여가활동 등도 노동과 결합되어 있다.

넷째, 女性의 사회적 참여가 同等하게 보장되고 있다.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가 적지 않으며, 이들은 건설, 농사 등 육체노동에도 종사하고 幹部職을 맡아 사업을 주도하기도 한다. 여성이 세 포위원장과 같은 간부직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의 그릇된 사고를 여성이 시정하기도 한다. 사회활동뿐 아니라 黨員으로서의 정치활동도 활발히 전개한다.

다섯째, 黨 혹은 黨員의 주도적 입장이 부각된다. 위기에 처하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黨員의 선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黨員을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한다. 또한 黨은 현지의 불합리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준다.

여섯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김일성의 지도가 최선의 解決策이 된다. 모자란 물품도 김일성이 해결해 주며, 정신적인 혼란도 김일성이 극복해준다. 김일성은 물질적·정신적 求心體로서 존재하며, 絶對善을 의미한다.

일곱째, 개인을 초월한 集團主義的 가치가 강조된다. 개인적 이해는 副次的인 것이며, 때로는 배제되어야 할 요소로 표현된다. 노동, 전투, 여흥 등이 개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주의 문화가 지향하는 내용들은 충실하게 북한영화에 반영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북한의 문학·예술에서는 傳統的 文化 要素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첫째, 家族關係를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의식구조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階級意識을 자각하거나 反帝國主義 意識이 고양되거나 근로의욕이 생겨나는 동기가 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男女間의 성적 분업구조는 전통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하더라도 養育, 炊事 등은 여성의 전유물이며, 남성들은 家事勞動과 무관하다.

셋째, 學歷에 따른 位階構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육체노동을 중시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한 선호, 그리고 대학을 통하여 상승이동을 추구하는 경향은 전통적인 儒教倫理와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合理的 判斷보다는 感情的 情緒를 중시하고 있다. 적과 동지의 구별, 체제의 우열여부는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權威의 正當性은 카리스마와 傳統에 의존하고 있다. 김일성은 어버이이며 全知全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살아있는 神話이다. 또한 김일성의 血統은 革命家 집안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服從과 忠誠만이 가능하고, 그에 대한 合理的 評價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를 지향하지만 民族的 傳統도 중요시하고 있다.<sup>115)</sup>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平面的으로 본다면 북한의 문화는 사

회주의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균등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화적 목표는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전통문화는 원칙적으로 克服의 대상이다. 性別이나 年齡에 상관없이 동일한 정치적 발언권을 갖는 다든지, 왕에 의존하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와 상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이 비판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도리어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에서 목표로 하는 黨性이나 階級性 그리고 人民性이라고 하는 이념적 요소들이 전통문화의 가치의 틀 속에서 機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平等도 기존의 男女關係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구하고 있으며, 육체노동을 중시하면서도 高學歷을 上層階層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예술 장르인 영화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의 문화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強調되고 있으나 전통적 가치들이 여전히 殘存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전통적 요소에 融解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第Ⅳ章 映畫分析을 통해서 본 傳統文化의 機能

북한의 영화는 政治社會化의 중요한 媒體로서 정치이념을 확산시키고 있다. 북한영화가 주로 다루고 있는 抗日武裝革命期의 遊擊隊活動, 한국전쟁시기의 戰鬪, 노동자·농민의 勤勞活動, 완비된 社會福祉施設, 김일성 一家 및 빨치산지도자들의 個人史와 같은 소재들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優越性, 자본주의 체제의 問題點 그리고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 正當化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이념뿐만 아니라 영화의 내용과 형식에서 구현되는 다른 요소들도 영화관람을 통하여 북한인민들에게 내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에서 표출되고 있는 전통문화의 정치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權力集中의 正當化

북한에서 전통문화가 강조되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의 건설도 기존의 文化的 土壤과 유리될 수 없으며, 민족문화와 민족국가를 달성하는데 기존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sup>116)</sup> 비롯되고 있다고

116) “로동계급의 새로운 문화는 결코 빈터우에서 생겨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민족문화는 지난날의 문화가운데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것을 계승하여 새생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는 기추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민족문화유산계

볼 수 있다. 즉 “민족문화유산은 민족생활의 독자성을 반영하면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그 민족의 문화생활에 이바지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도 이바지하여왔다”는<sup>117)</sup> 평가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문학·예술을 보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비판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족문화는, 문화의 內容보다는 形式的인 側面이라고 할 수 있다.<sup>118)</sup> 전통악기나, 무용의 시위, 음악의 화성 등이 보존과 繼承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가족주의나 유교적 가치관은 克服되어야 할 전통문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부장적 권위관계, 전통적 남녀관계와 같은 전통문화의 내용이 여전히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가 여전히 북한사회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지배이념을 확산시키는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效率性を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전통문화에 익숙한 인민들에게 傳統文化의 樣式을 빌어서 사회주의 문화를 이식시킴으로써 저항감없이 정치사회

---

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p. 27.

117) 「문학예술사전」, p. 323.

118)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막으려면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주체적인 민족문화예술은 민족적인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인민대중의 정치문화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빠나마 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415.

화를 진행시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거나 새로운 생활양식을 소개하거나, 사회주의 건설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데는 傳統的으로 權威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존경받는 노인을 活用하고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교육 및 정치사회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적 담당자는 아버지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아버지(혹은 할아버지)에 의해서 새로운 이념을 교육시키는 것이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랜 기간 既得權을 갖고 있었던 男性集團들을 포용하는 것이 새로운 이념을 전파시키는데 유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이 剝奪感을 갖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意思傳達 方法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新派調를 활용하여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도 북한의 인민들이 거부감없이 이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부장제나 가족주의를 비롯한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온존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을 提高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전통적 가치들을 이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전통문화의 요소들이 북한체제의 권력구조를 鞏固化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정권수립 이후 1950년대까지 지속된 權力鬭爭에서 승리

한 김일성은 권력을 集中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문학·예술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1960년대부터 부각된 항일혁명문학이다. 김일성의 유격대활동을 소재로 한 각종 문학·예술작품들이 생산되었고, 영화에 있어서는 「유격대 오형제」, 「피바다」(1969), 「한자위단원의 운명」(1970), 「꽃과는 처녀」(1972) 및 「조선의 별」(1~10부 1980~1987)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그런데 항일혁명문학 계통의 작품에서는 전통문화적인 요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家父長的인 家族構造를 강조하고 있으며, 傳統的인 男女關係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위대성을 묘사하는데 고전적인 英雄文學的 방법을 원용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인민의 아버지로 象徵化하고 있다.

전통적인 유교이념에서 중심이 되는 忠孝의 가족윤리를 강조하고 이를 확대하여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家父長的 秩序觀은 김일성의 권력을 절대화할 수 있다. 특히 1969년에 혁명적 수령관이 정착되고,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를 특징으로 하는 唯一思想體系가 정립되었는데,<sup>119)</sup> 이러한 권력구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전통적 가치관이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主體思想의 강조도 전통문화의 적극적 활용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民族主義的 성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

119)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pp. 104~105.

족문화의 적극적 保存을 추구하고 있다.<sup>120)</sup> 主體思想에서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反帝國主義的 입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의 제국주의적 문화침략에 대항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民族文化遺産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국문화에 오염된 남한문화와의 差別性을 부각함으로써 북한체제의 正統性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민족문화를 강조함에 따라 정통문화적 요소 수용의 理論的 근거가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체사상과 주체문예이론의 성립은 기존의 전통문화 중에서 사회주의의 일반적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權力世襲의 正當化

傳統文化의 적극적인 활용은 김정일로의 권력세습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권력의 중심부에 진출한 1980년대 이후에 발표된 영화에서 傳統的 價値를 강조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특히 부자간, 혹은 모자간의 職業承繼를 주제로 한 「철길따라 천만리」, 「숲속의 갈림길」, 「마음에 드는 청년」 등이 1980년대 중반부터 제작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서 김형직, 김철주, 김정숙 등 김일성 一家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어 血統의

120) 민족문화보존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성의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계승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참조.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父子間의 權力移讓을 정당화시켜주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권위체계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가정단위에서는 父子世襲과 국가단위에서는 王朝世襲이 정당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전통가족은 直系家族(stem family)으로 長子承繼가 정통이었다.<sup>121)</sup> 따라서 전통적 가치들을 재강조하는 것은 김정일로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가치는 권력이양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권력을 승계받은 김정일의 정치적 권위를 정당화시켜주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김정일이 주창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북한을 首領, 黨 그리고 大衆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生命體로 간주하고,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대중과의 血緣的 關係를 강조한다.<sup>122)</sup>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혈연관계는 ‘우리 사회는 하나의 대가정’이라는 인식으로 연결된다. 국가를 하나의 대가정으로 인식하

121) 한국의 傳統家族은 3世代가 同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擴大家族(extended family)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次男 以下는 分家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한다면 直系家族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같은 儒敎國家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擴大家族이었고, 일본은 직계가족이라고 하여야 한다.

122)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61.

면 지도자는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아버지에게 아들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따라서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도 “아버이로서 하나의 인덕정치를 베풀고” 있으며, “아버이를 따르는 친자식처럼 우리 인민들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믿고 따르며 기쁜 일도, 가슴속 깊은 사연도 그이께 숨김 없이 다 아뢰며 모든 운명을 맡기게” 된다.<sup>123)</sup> 이러한 思想은 전통적인 家父長制의 秩序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혈연을 강조하는 경우 귀속적 지위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여, 뛰어난 아버지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의 個人的 能力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작품들의 內容에서 전통적 가치를 표출하여 인민들에게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영화의 제작과정에서 김정일의 指導를 부각하는 방법은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한다. 관객이 되는 인민들은 가부장적 권위구조에 따른 父子關係와, 血緣의 重要性을 강조하는 내용의 영화를 보는 동시에 영화를 만든 사람이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김일성의 위대성이 김정일로 자연스럽게 移讓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3) “우리사회는 하나의 대가정이다,” 「로동신문」, 1993. 2. 1.

## 第 V 章 結 論

사회주의의 문학·예술 중에서도 특히 映畵는 정치사회화의 핵심적인 매체이다. 북한에서도 黨과 最高指導者의 관할하에 영화를 이념 전파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支配集團이 지향하는 理念과 思想을 알아볼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영화에서는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 김일성의 위대함, 主體思想의 탁월함과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는 傳統文化的인 요소들도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있다.

북한의 영화에서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은 社會主義文化를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고 개념 규정하는 김일성의 敎示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主體思想을 구체화시킨 1960년대 이후에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기 때문에 전통문화적인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경쟁에서 문화적 正統性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통문화를 중시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작품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權力體系의 유지 및 權力承繼過程과 관련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家父長的 權威主義나 家族의 중시는 사회주의의 이념에는 배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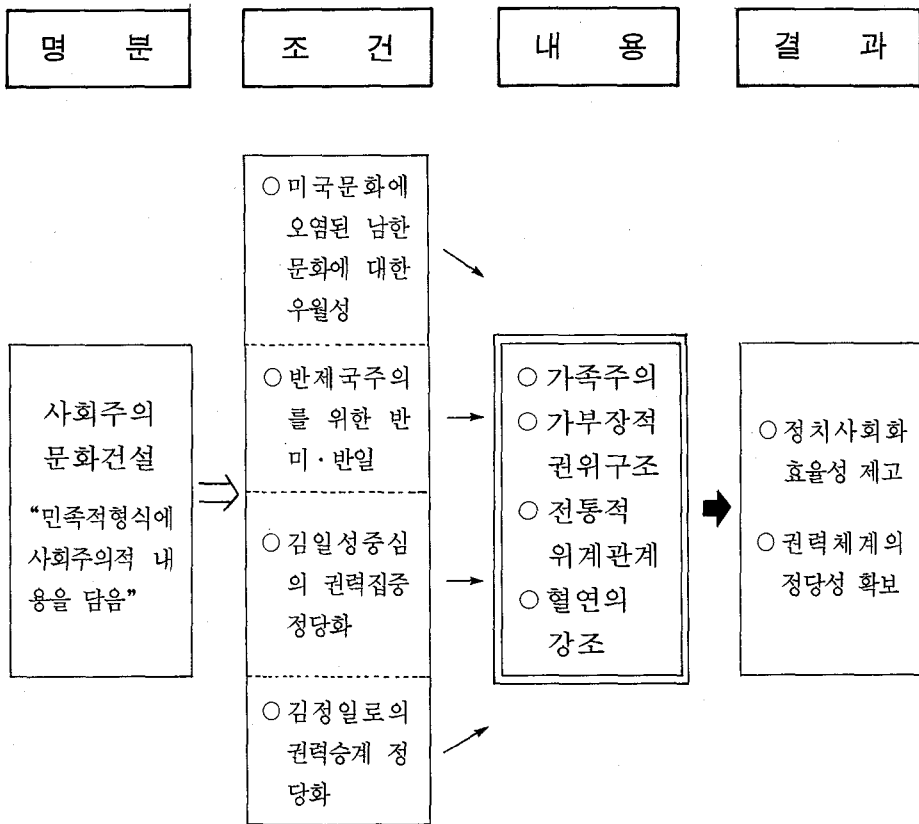
는 것이며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대상들이나, 북한의 영화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문학·예술이 아니라 民族的 形式에 體制 正當化의 內容을 담은 문학·예술들이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傳統文化를 활용한 것은 정치사회화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인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文化的 脈絡에 부합되는 형식과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支配 集團이 확산시키고자 하는 이념이 효과적으로 인민들에게 受容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다음 장의 도표이다.

북한의 政治社會化 過程에서 傳統文化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권력체제의 유지 및 변화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문화에서 전통문화적인 요소들을 殘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전통문화가 현재의 북한의 권력구조를 정당화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社會發展에 순기능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家父長的 權威構造는 封建的 不平等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체제에 상관없이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男性優位의 傳統的인 男女關係의 유지는 生産現場과 家庭에서 여성에 대한 二重搾取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서 전통적 가치가 劃一的 權力統制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전통문화의 올바른 계승을 저해할 수 있다. 脫產業化 時



代에 西歐에서 東洋的 가치관이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와 같이 전통적 가치의 否定的인 측면이 擴大 再生産되면 전통적 문화가 현재에 기여할 수 있는 肯定的인 측면이 간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傳統文化가 현대사회에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 고라도 북한에 어느 정도 전통문화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社會·文化的 통합을 위한 하나의 土臺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록 南北韓의 문화가 각각 西歐資本主義와 社會主義에 의 하여 침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전통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價値들은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권력구조가 유지되는 한 전통문화의 활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사회·문화통합을 위해서는 異質性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남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同質的인 부분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북한에 잔존해 있는 전통문화적 요소들과 남한의 전통문화적 요소들은 同質性 擴大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서울: 문맥사, 1990.

김영준. 「모택동사상과 등소평의 사회주의」.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5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3.

\_\_\_\_\_. 「세기와 더불어」 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재영 외.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 형설출판사, 1990.

김학준·전인영. 「소련 및 동구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모택동, 이등연 역.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 서울: 두레, 1989.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2~1993」.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박규식. 「김정일평전」. 서울: 양문각, 199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소련사회문화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송영배. 「유교적 전통과 중국혁명: 유교사상, 유교적 사회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최은희·신상욱. 「최은희·신상욱남북수기: 김정일 왕국」 上·下.

- 서울: 동아일보사, 1988.
- 최재석.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1985.
- 최척호. 「북한예술영화」. 서울: 신원문화사, 1989.
- 통일원. 「북한개요 92」. 서울: 통일원, 1992.
- 한중모.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1: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건설」. 평양: 문예출판사, 1992.
- 한중모 · 김정용 · 김준규.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초 3: 문학예술형태」. 평양: 문예출판사, 1992.
- Almond, Gabriel A. and Powell, G. B. *Comparative Politics: A Developmental Approach*. Boston: Little Brown, 1966.
- Baxandall, Lee and Marawski, Stefan. trans. and ed. *Marx & Engels On Literature and Art: A Selection of Writings*. St. Louis: Telos Press, 1973.
- Bertsch, Gary. Clark, Robert P. and Wood, David M. *Comparing Political Systems: Power and Policy in Three Worl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Boggs, Joseph M. *The Art of Watching Films*. 이용관 역. 「영화보기와 영화읽기」. 서울: 제3세계사, 1991.
- De Georgy, Richard T. *Patterns of Soviet Thought*. 조태훈 · 박진환 역. 「소비에트사상의 구조」. 서울: 문우사, 1986.
- Dudley, Andrew J. *The Major Film Theories*. 조희문 역. 「현대영화이론」. 서울: 한길사, 1988.
- Engels, Frederick. *The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 State: In the Light of Researches of Lewis H. Morgan.* in vol. 2 of *Karl Marx &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9.
- Friedrich, Carl J. and Brzezinski, Zbigniew K.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최운지 역. 「전제주의독재정치론」. 서울: 정림사, 1971.
- James, C. V. 연희원 역.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 서울: 녹진, 1990.
- Grulio, Leo. ed. *Current Soviet Policies II: The Documentary Record of the 20th Communist Party Congress*. New York: Praeger, 1957.
- Solomon, Richard H. *Mao's Revolution and the Chinese Political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 Wang, James C. 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n Introduction*. 이문규 역. 「현대 중국정치론」. 서울: 인간사랑, 1988.
-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vol. I (eds.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 블라디미르 고르부노프. 김정환 역. 「레닌의 사상투쟁」. 서울: 푸른숲, 1990.
-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소련 레닌그라드대 란코프교수의 북한생활체험기」. 서울: 연합통신, 1991.
- 오프스니아니코프. 이승숙·진중권 역. 「마르크스-레닌주의 미학원론」. 서울: 이론과 실천, 1990.

## 2. 論 文

강성윤.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전인영 편. 「북한의 정치」. 서울: 을유문화사, 1990.

강현두. “북한의 방송.” 유재천 편. 「북한의 언론」. 서울: 을유문화사, 1989.

고영복.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추세.”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4호 (1978).

김기덕. “북한 영화의 제작기술 현황.” 「통일정책」, 5권 4호 (1979).

김덕. “정치사회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 정치과정」. 서울: 정음문화사, 1985.

김문환. “북한연극의 특징: 체제적 접근.” 권영민 외. 「북한문화예술 연구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0.

김병원. “강화이론에 비추어 본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5권 1호 (1979).

김영수. “북한의 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김일성. “빠나마 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_\_\_\_\_. “조선로동당 6차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_\_\_\_\_.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

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2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_\_\_\_\_.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전국어머니대회에서 한 연  
설).”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재용. “북한문학계의 ‘반종파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역  
사비평」, 16 (1992 봄).

김정옥. “북한 영화의 예술성과 사상성.” 「통일정책」, 5권 4호  
(1979).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친  
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1992.

도홍렬.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실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  
책」, 4권 4호 (1978).

\_\_\_\_\_.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최명 편. 「북한개론」. 서울: 을  
유문화사, 1990.

림춘추. “혁명적 출판물에 대한 그이의 지도.” 「항일무장투쟁 회상  
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서울: 고추잠자리 판,  
1988.

민병남. “영화예술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 「조선영화」, 237



(1993. 3).

박명진. “남북한 접근에 있어서 영화예술의 기여가능성.” 「분단국가의 문화통합」, 국토통일원 주최 제10차 한·중학술회의, 1989.

\_\_\_\_\_. “영화산업의 욕망관리체제: 스타제도.” 「문화과학」, 3호 (1993 봄).

백옥인. “북한의 일상생활.” 강정구 편.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부남철. “북한의 유교적 전통윤리 정책: 가족윤리·법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IV): 북한의 경제·사회·사법제도분야」, 서울: 통일원, 1992.

오세철. “베트남의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동: 프랑스 식민지 시대 이후를 중심으로.” 김달중·구성렬 외.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서울: 법문사, 1992.

온만금.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와 결과분석.”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서울: 통일원, 1992.

이우영. “북한영화의 특성과 사회통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세미나, 1993. 9. 23.

이종석. “조선로동당의 지도이념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이충양. “중국의 문예정책.” 「중소연구」, 14권 4호 (1990/91 겨울).

- 이효재. “한국가부장제의 확립과 변형.” 이효재 외. 「한국가족주의론」. 서울: 까치, 1990.
-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소련의 민족문화정책: 민족어정책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 조규화. “소련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한국외국어대학교 소련문제연구소 편. 「소련정치과정」. 서울: 정음문화사, 1985.
- 조혜인. “북한의 종교: 유교적 유산을 통하여.” 「동아연구」, 25 (1992).
- 조혜정. “한국사회변동과 가족주의.” 「한국문화인류학」, 17집 (1955).
- \_\_\_\_\_.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 진원중.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 정책.”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4호 (1978).
- 차영수. “공산주의 교육과 정치사회화 과정.”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3호 (1978).
- 최인학. “남북한 기층문화 전승실태.” 평화통일연구소. 「통일정책」, 4권 3호 (1978).
- 최재현. “북한사회이념속에 전통적 요소: 김일성 저작집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14 (1988).
- 허 숙. “북한의 취학전 및 초등교육.” 황정규 외. 「북한교육의 조명」. 서울: 법문사, 1990.
- 현종호.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 「근로자」 (1987. 3).

- Althusser, Louis.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Brewster, Ben, tran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 Gray, Jack. "China: Communism and Confucianism." Brown, Archie and Gray, Jack, eds.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New York: Holmes & Meire Publishers, Inc, 1979.
- Kang, Thomas Hosuk. "Changes in the North Korean Personality From Confucian to Communist." in Park, Jae Kyu and Kim, Jung Cun,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1979.
- Lenin, Vladimir Il'ich. "Two Culture in Every National Culture." Robert C. Tucker, ed. *The Lenin Anthology*.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75.
- \_\_\_\_\_. "L. N. Tolstoy." *Works of Lenin* XVI.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0.
- Pye, Lucian W. "유교적 레닌이스트문화에 있어서의 리더쉽: 중국, 북한 및 베트남." 김달중·스칼라피노 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중국·북한·베트남」. 서울: 법문사, 1989.
- Singer, Milton. "Culture: The Concept of Culture." Sills, David L.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Publishers, 1968.
- "Culture." in Bottomore, Tom. et al.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Publishers Limited, 1983.

스탈린. “맑스주의와 민족문제.” 서중건 역. 「스탈린 선집 1 (1905-1931)」. 서울: 전진출판사, 1990.

존 스튜어트 밀. “비교의 두방법.” 차중천 역.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저.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 서울: 열음사, 1990.

古田博司. “북한에 있어서의 유교전통과 주체사상의 전개: 김정일의 <7.15담화>를 중심으로.” 「下關市立大學論集」, 34 (1991).

大內憲昭. “法律かみた北朝鮮の家族, 社會, 國家制度.” 統一評論社. 「統一評論」, no. 319 (1992. 1).

中根千枝. 최길성 역. 「일본의 사회구조」. 서울: 형성, 1985.

### 3. 其他

「로동신문」.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2.

「북한용어 250선집」. 서울: 내외통신, 1992.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조선영화년감 1990」. 평양: 문예출판사, 1990.

# 附 錄

빈 면

## 북한 예술영화 目錄 1960~1990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60	녀성영웅광부		주동인	윤통규		
1960	대동강반에서					
1960	두만강		리기영작 · 리중순	전동민		
1960	벗들이여 우리와 함께가자	항일유격대	리중순	천상인		
1960	불사조		송영작 · 한상운			
1960	붉은 꽃봉우리					
1960	붉은 신호탄					
1960	수정골사람들		선고송	신태옥		
1960	한부녀회원의 이야기	항일유격대	리득홍	손무표		
1960	항쟁의 서곡		주동인 · 한형원	강홍식		
1960	황혼		한설야작 · 리지용	오병초		
1960	영광스러운 우리조국		집체	민정식 · 정춘채 유득춘 · 김영희		
1961	갈매기호 청년들	근로 · 어로	한상운	한성순 · 김정호		
1961	공장은 나의 대학					
1961	분계선마을에서	반한 · 반미 · 월 남가족	리지용	박학		인민상
1961	꽃피는 시절	농촌 · 노동				
1961	붉은 심정					
1961	용해공들					
1961	강건너마을에서 새로 내들 려온다					
1962	당의 딸					
1962	돈화의 수림속에서		김승구	손무표		
1962	붉은 선동원		조백령	박학		
1962	산울림					
1992	새봄					
1962	우리어머니					

\*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1961~199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 「조선영화년감 1990」 (평양: 문예출판사, 1990); 백지한 편, 「북한영화의 이해」 (서울: 친구, 1989); 최척호, 「북한예술 영화」 (서울: 신원문화사, 1989).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62	원수를 잊지말라					
1962	위대한 승리		김영상	김영상		
1962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박근	오병초		
1962	청년작업반장					
1962	1211고지 방위자들	전쟁	집체	리기성		
1963	교예무대					
1963	꺼지지않은 등불					
1963	꼬마기상대					
1963	남원					
1963	다시찾은 이름	해방전후	리종홍	전운봉 · 윤호락		
1963	대지의 아들 1·2부	해방전후	주동인	신태욱		
1963	두지배인					
1963	땅을 지키는 사람들		한복규	전동민		
1963	마을에서의 사랑					
1963	백일홍		권정웅	최익규		
1963	붉은 꽃	여교원	리종순	천상인		
1963	새세대		김병운작 · 최익규	최익규		
1963	영예로운 임무	전쟁 · 정찰조	홍개석			
1963	우리꽃동산					
1963	저예망선 558호					
1963	정방공	노동: 해방후 ~60년대	한성	오병초		인민상
1963	조국으로 돌아오다	남한비판	김승구	민정식		
1963	처녀선장					
1963	첫병기창	항일	손병렬			
1963	축배					
1963	홍부전					
1964	108의 비밀					
1964	고향의 자랑					
1964	공청원의 노래		박승수	손무표 · 안문하 조동월		
1964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전쟁기 기계공장	양재춘 · 김창식	오병초		
1964	끝없어라 나의희망	노동	백인준	오병초 · 김선교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64	남강마을 녀성들	전쟁기후방	김재호 · 리종렬	박대식 · 함운봉	2·8	
1964	녀대원 1·2부	항일	신운호 · 손봉렬 김영식	장운강	2·8	
1964	대지의 아들 3부	전후복구	주동인	신태욱		
1964	독로강변에 핀 꽃	반미; 교원	김종진	박학		
1964	랑반전		주동인	천상인		
1964	령북의 새아침					
1964	밝은 태양아래		조령	민정식		
1964	빨치산의 뺨꾸새	유격대; 어린이	리명원 · 리태화	림신목 · 량진	2·8	
1964	새들이 날아든다					
1964	소년중대원					
1964	수송전사의 노래	전쟁	성기형 · 민병선			
1964	애착	노동고취	최창학	한성순		
1964	영이는 노래한다.	재일교포	임현재	한희철 · 리덕규		영화음 악모범
1964	은빛날개 118호	전쟁	홍개석			
1964	인민교원	교원	허용삼 · 한상운	천상인		
1964	적후에서					
1964	처녀중대장		한상운	최익규		
1964	청봉숙영지	항일유격대	리지용			
1964	침략선사만호					
1964	태양의 딸					
1964	한전사의 이야기	전쟁 · 노동	주동인	민정식		
1965	그들은 대지에 서있다					
1965	그들은 이렇게 싸웠다 2부	전후복구:기계 공장	양재춘 · 김창식	최익규		
1965	나의 매제					
1965	박달령의 서사시	전쟁	리종렬			
1965	보이지 않는 전선	전쟁				
1965	새살림					
1965	생활의 노래					
1965	성장의 길에서 1부	남한비판: 4·19 시기	백인준	전운봉	조선예술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65	성장의 길에서 2부	4·19이후	백인준	오병호·박창환	조선예술	
1965	애국자 김정호		최창경	정규완		
1965	옥화	여차장		전운봉		
1965	온가정이 떨어져 나갔다		박승수	손무표		
1965	온정령					
1965	종소리					
1965	천리길	전쟁	김정호·리동일			
1965	진심					
1965	청년전위 1·2부	항일	림춘추작·김승구	신태욱		
1965	투쟁의 노래					
1965	폭풍시절 1·2부	항일	박경보	천상인·전암		
1965	한영웅에 대한 이야기	전쟁	박태홍·신상호	림신묵·김광운		
1965	한지대장의 이야기 전·후편	항일	리중순	박학		
1966	60청춘					
1966	7일간					
1966	고향길					
1966	금강산 처녀					
1966	두번째 상봉					
1966	두소년					
1966	명량한 무대					
1966	새별					
1966	어느 한 농장에서					
1966	영원히 이길에서					
1966	적후의 청년					
1966	철길우에서	전쟁	민병선·김수현 김종혁	김성교		
1966	첫걸음					
1966	최학신 일가	반미: 전쟁전후	백인준	오병호		
1966	통신원					
1966	학수리 사람들					
1967	강물은 흐른다	항일유격대	유정혁	박동연·장용강		
1967	빨치산영웅 김진동무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67	동무 이충을 받아주오					
1967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 전·후편	조총련	허남기			
1967	적구도시에서	전쟁	리호근			
1967	적후련대	전쟁				
1967	한아동단원의 이야기	아동유격대	김통서			
1967	할아버지의 심정	노동	백인준			
1968	금돌소년	아동유격대	안성갑			
1968	마을사람들 속에서	항일유격대	백인준			
1968	북극성					
1968	유격대오형제 1·2부	항일유격대	박승수	최익규		
1968	전사의 맹세 1·2부	해방후·전쟁	주동인	민정인		
1968	천보산의 용사					
1968	한 작업반에서					
1968	내일은 온다					
1969	여성고사총수들	전쟁				
1969	빨치산남매	아동유격	리명원·류정혁			
1969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반미·반한				
1969	새날이 보인다	반한:남북어부	김승구·한명천			혁명연극
1969	성황당					
1969	유격대오형제 3부					
1969	피바다		김일성작			혁명가극 · 김정일 지도
1970	꽃피는 마을	노동	한복규			인민상
1970	내가 찾은길	항일유격대	집체	천상인		
1970	여성 트락또르 운전수					
1970	딸의 심정					
1970	마을을 지켜 싸운 인민 무장대	전쟁	유기홍		2·8	
1970	만경대 오누이					
1970	매화꽃은 떨어졌다	간첩			2·8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70	보람찬 나의 일터					
1970	새조선 1·2부					
1970	세상에 부림 없iera					
1970	수상한 전파	간첩				
1970	숨길수 없는 정체	간첩			2·8	
1970	아름다운 거리					
1970	안해의 일터	노동	김세륜			
1970	어느 한 여성 직장에서	노동·가사	리관용			
1970	작전문건				2·8	
1970	적후의 진달래	전쟁			2·8	
1970	조국으로 돌아온 관오의 일가	체제선전: 복송교포	김승구			
1970	치너리발사	노동	장래순·이희영			
1970	총성의 기적소리					
1970	한자위단원의 운명	항일유격대				혁명가극
1971	기관사의 아들	전쟁				
1971	누구의 탓인가					
1971	두작업반장과 두전사					
1971	로동가정 전·후편	노동:광산	박봉학·최용수			인민상
1971	목란꽃피면 전·후편	전쟁:첩보	리영준		2·8	
1971	밀림의 청춘					
1971	빛나는 별들	전쟁			2·8	
1971	빨간대기를 찾는 소녀	혁명전통				
1971	사과떨때	노동·세대갈등	김세륜			
1971	종소리 울린다	전쟁			2·8	
1971	태백산에 봄이온다	전쟁	정인순		2·8	
1971	포구의 처녀들	노동·세대갈등	김정홍			
1971	학부형					
1971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	전쟁	집체			
1972	꽃파는 처녀	항일	김일성작			혁명가극 ·김정일 지도
1972	당의 진실한 딸					
1972	목란꽃은 다시피었다	전쟁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72	보통강변에 얹힌 이야기					
1972	압연공들	노동:제강공장	김선홍			
1972	영원한 전사	항일	집체			
1972	우리 련차판매원	노동	신정범			
1972	재단사들	노동	장래순			
1972	화선에서 부르던 노래	전쟁	김세륜			
1973	검은장미	간첩			2·8	
1973	경비원의 수기					
1973	그들의 교훈					
1973	목란꽃 3부				2·8	
1973	억센날개				2·8	
1973	우리동무들	전쟁				
1973	우리집 문제	가정혁명			2·8	
1973	잔치날	농촌문제	리희찬			
1973	처녀지배인	3대혁명소조	집체			
1973	초병의 눈				2·8	
1973	한 의학자의 길	전쟁	한성			
1974	금회와 은회의 운명	반미·반한:	백인준			
1974	농산기수	이산가족 혁명소조	홍진숙			
1974	도루매기소동	항일				
1974	두유가족에 대한 이야기	전쟁				
1974	바다면 산촌에서	산간개발				
1974	새세대를 위하여	전쟁·가족				
1974	소낙비	노동				
1974	시제품사건	반형식주의				
1974	어느한 공장에서					
1974	열관리공	3대혁명	리춘구			
1974	잔치날: 도시편	생활양식	리희찬			
1974	탄전의 주인들	혁명소조	박봉학		2·8	
1974	풍년바람					
1975	2호창고에서 있었던 일					
1975	교압선	전후복구	설주용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75	농민영웅 전·후편	노동: 해방전후	한복규			
1975	다시만난 전우	노동·3대혁명	설주용			
1975	당신은 나를 잘못 봤소					
1975	보람찬 나의 일터					
1975	봉선이와 원옥이					
1975	사랑의 기적소리					
1975	산의 연					
1975	산정의 수리개들	노동: 건설	김창수			
1975	새화물지도원					
1975	세동서		김재룡			
1975	소홀히 할수없는일					
1975	영원히 이길에서					
1975	우리농장 처녀기사	혁명소조	리춘구			
1975	우만 쳐다본다					
1975	은혜로운 햇빛은 여기에도 비춘다	조총련	허남기			
1975	이물길은 막지 못한다					
1975	직장장의 학습총화	계급교양				
1975	책임한계					
1975	큰길가에서					
1975	한 트랙또르운전사					
1976	공장에서 온 청년	휴가시 노동				
1976	그는 우리와 함께 있다					
1976	기사들					
1976	녀전사	유격대				
1976	대지에 뿌리내린다	협동농장				
1976	트랙또르 제1호에 깃든 이 이야기					
1976	빛나는 태양아래서					
1976	어느 한가정에서	인텔리노동				
1976	우리선전원	농촌교원				
1976	처녀관리위원장	농촌여성				
1976	첫과견원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76	햇빛을 신고간다	수령은혜	백인준				
1977	누리에 붙는 불	수령가족투쟁					
1977	수입병	국산품애용					
1977	시련의 해	전후복구					
1977	이세상 끝까지	유가족·반종파					
1977	한 해병이야기						
1978	공화국기치아래서						
1978	대성산						
1978	보이지 않는 요새						항일
1978	빛나는 세대						3대혁명전위
1978	운전수집새며느리						농촌문제
1978	유원지의 하루						체제우월성
1978	음모자 속에서						간첩
1978	첫무장대오에서 읽은 이야기						항일운동
1978	첫통화						해방후복구
1978	축포가 오른다						전쟁
1979	서암령초소	전쟁				김정일 지도 45일에 한편제작	
1979	안녕하십니까	교양					
1979	안중근이등박문을 쏜다	항일					
1979	이름없는 영웅들 1~20부 ~81	전쟁·간첩					
1979	전사의 어머니	전쟁					
1979	혈육 전·후편	이산가족					
1980	검사는 말한다						
1980	노을을 비긴 호수	노동: 제대군인	리춘구				
1980	백두산						
1980	열네번째 겨울 1·2부	신품종개발	리종순				
1980	우리가 사는 거리						
1980	조선의 별 1·2부	김일성	김송규	윤룡규		59년작 재창작	
1980	초행길 전·후편	경제개발					
1980	춘향전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1	달매와 범다리	전설				
1981	우리누이집문제					
1981	조선의 별 3부					
1981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 전·후편	산간일꾼			2·8	
1982	군당책임비서	경제·계급교양	리춘구			
1982	그날의 맹세	전후복구				
1982	더 높은 곳으로	체제우월성				
1982	두선장					
1982	또다시 이어진 사건	간첩				
1982	사랑의 노래	체제홍보: 평양	민순실	림창범		
1982	세월이 흘러간 뒤	산원				
1982	숲은 설레인다	전쟁				
1982	양지말 사람들 1·2부	산림보호원				
1982	언제나 한마음	토지개혁	김희봉	리재준		
1982	우리는 묘향산에서 다시 만 났다	전쟁복구				
1982	월미도	체제우월성				
1982	월미도	전쟁	리진우		2·8	전쟁영화 모범
1982	전선길 전·후편	전쟁			2·8	
1982	조선의 별 4부: 잊을 수 없 는 여름	김일성활약				
1982	조선의 별 5부: 눈보라	김일성활약				
1982	조선의 별 6부: 불타는 봄	김일성활약				
1982	종군기자의 수기	전쟁			2·8	
1982	청춘의 심장	3대혁명소조	리춘구			
1982	혁명가					
1983	강릉치녀와 평양젊은이					
1983	끈은길					
1983	공장의 주인들					
1983	굴하지않는 사람들	항일			2·8	
1983	금강의 세동서					
1983	돌아설 수 없다	전쟁	최부길	최부길	2·8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3	등대					
1983	만병초	항일				
1983	바다가 마을에서					
1983	발동소리 울린다					
1983	불타는 마음	농촌				
1983	비류강의 새전설	전쟁			2·8	조·중 합작
1983	살림꾼 오복녀					
1983	새별	전쟁				
1983	시련을 뚫고	전후복구				
1983	안개속의 과거	전쟁				
1983	열다섯소년에 대한 이야기 1·2부					열다섯소 년표류기 번안
1983	우리는 모두한가정					
1983	우리작은집 문제					
1983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		정명기	림창범		
1983	전사의 편지					
1983	전환의 해	전후복구				
1983	조선의 별 7부: 남만에서					
1983	한지대장의 이야기 1·2부					
1983	흔적을 따라서					
1984	개척지들 1부: 시련	농장건설: 전쟁 시기	조현동	김영호	왕재산	
1984	결혼후 첫째					
1984	공장의 주인들	대안의 사업체계				
1984	그를 알기까지	전쟁				
1984	길	여성운전사				
1984	꿈많은 처녀	웃도안가			왕재산	
1984	농장의 딸	혁명소조				
1984	돌아오지않는 밀사	이준열사		최은희	신필름	
1984	려단장의 옛 상관	특수상사	리상욱		2·8.월미도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4	령길위에 피는 꽃	조중친선				
1984	마을의 보안원					
1984	바다를 막는 사람들	간척사업				
1984	발동선이 울린다	농촌기계화				
1984	붉은 산마루	조중친선				
1984	붉은 화살					
1984	설한령의 세처녀	노동				
1984	소년근위대					
1984	연길위에 피는꽃					
1984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전쟁				
1984	전야에 피는 꽃들	농장가족				
1984	조선의 별 8부: 저물어가는 1932년	김일성				
1984	철길따라 천만리	기관사			신필름	
1984	첫보안서원들 전·후편					
1984	탈출기		최서해작		신필름	
1984	푸른 소나무 전·후편	김형직			보천보, 백두산	
1985	개척자들 2부: 백두고원에 봄이 온다	농장건설	조현동	김영호·김길하		
1985	고결한 삶	노동			보천보, 조선예술	언제나한 미음 3부
1985	광주는 부른다	광주의거			신필름	
1985	그들의 모습에서	반미				
1985	기쁨	노동: 닭공장 지배인				
1985	로동자부대	노동: 전쟁시기				
1985	봄날의 눈석이 1·2부	이산가족	리춘구	고학림·림창범		
1985	붉은 날개	비행사			신필름	
1985	붉은 산동성	중국군참전기				
1985	생명수	노동				
1985	소금	항일		신상옥	신필름	모스크바 영화제 수상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5	영원한 전우 1·2부	항일: 조소동맹			보천보, 모스필름	
1985	은비녀					
1985	장산리녀성들	전쟁시후방	리춘구·홍진숙	김덕규	왕재산, 조선예술	
1985	전쟁이 끝날 무렵	전쟁·첩보				
1985	전조선	비무장지대				
1985	제9련대	전쟁			2·8	
1985	조선의 별 9부: 료혹산의 전설	김일성			백두산, 대흥산	
1985	준엄한 봄					
1985	중대정치지도원	군정치일꾼				
1985	평범한사람	노동: 재철소	리덕윤	김영호	대흥단, 조선예술	
1985	포화속의 청춘					
1985	헤어져 언제까지	이산가족			신필름	
1985	혁명가 1·2부	최현			2·8, 대덕산	
1985	홍보석의 정체	간첩	리춘구	고학립·림창범		문예봉 20년만 에출연
1986	가야금에 깃든사연					
1986	고향으로 온 련대장	건설				
1986	군기	전쟁			2·8, 대덕산	
1986	그들의 청춘시절	항일			왕재산, 조선예술	
1986	네거리의 초병	교통안전원				
1986	녀교원	해방후교원				
1986	명령 027호	전쟁·첩보	리상욱	김기모·김응석	2·8, 월비산	
1986	미더운 전우	전쟁				
1986	빛나는 금별					
1986	산정의 처녀기사	노동				
1986	새정권의탄생1·2부	항일	리춘구	조경순	2·8, 대덕산	
1986	소년빨치산	전쟁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6	아들들	군민일체	이황산	강중모	2·8	
1986	어머니의 마음	항일	오진홍	김룡린	대흥단, 조선예술	
1986	온달전					
1986	우리인민반장	계급교양				
1986	위대한품 1·2부	김구	김영준	오병초	왕재산, 조선예술	
1986	잊을수없는 나날에					
1986	진심		설진기	문정송		
1986	참된심정	농장				
1986	추억의 노래	외국인의 김일성 송배				
1986	하루를 앞두고					
1986	홍길동전					
1987	군당지도원	간척	홍진숙	리경진		
1987	군안전부장	화학공장폐수시 설				
1987	기다려다오	김정숙전기			백두산, 조선예술	
1987	다시 시작된 우리집문제					
1987	도라지꽃	산간마을개척				비동평 영화제 수상
1987	려명 전·후편	김형직	백인준	리재준	백두산, 보천보	
1987	림격정 1부:의형제편					
1987	림격정 2부:결의편					
1987	먼 남쪽바다에서	전쟁	유정혁	남철민	2·8, 월미도	
1987	몇사람만이 알고 있다	전쟁				
1987	민족의 태양 1부:준엄한 시련	반종파	백인준	엄길선	백두산, 보천보	
1987	보충 1·2부	사회정치생활, 김정일위대성	리춘구	김영호	대흥단· 조선예술	김정일 지도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7	북산땅의 주인	산간지방	리덕윤	리승호		
1987	불타는 모래불	전쟁				
1987	사령부를 멀리 떠나서	김정숙				
1987	시형과 채수	협동농장	김국성	김길인		
1987	어머니의 소원	남한에서 간첩으 로 잡힌 아들				조 총 련 과 합작
1987	우리 대의원	집단주의				김일성 75회생 일기념
1987	우리나 만나는 곳에 1·2부	항일: 지식인	오혜영	김통린		
1987	전사의 숨결					
1987	전쟁의 불길속에서					
1987	조선의 별 10부: 불타는 근 거지 전·후편	김일성	리종순	엄길선	보천보, 조선예술	
1987	진실한 사람	항일	오진웅	최부길		
1987	친위전사	김정숙				
1987	파도는 노래한다	간척지·어촌				
1987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미군기격추				
1987	한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 1 부	전후복구				
1987	혁명전사 전·후편	김철주	송상원	류소원	2·8, 백두산	
1988	교육자의 모습					
1988	그들의 하루	건설: 능라도				
1988	기쁜날	무용				
1988	끝나지 않은 항로	간척지	김윤송	윤기찬		
1988	나의 행복	군부대병원장	오혜영	김영호	대흥단, 조선예술	정권40 주기념
1988	내가본 나라	일본기자가 본 평양				
1988	내나라	건국과정	리종순	정운모	백두산, 보천보	
1988	대덕산					
1988	땅과 말하는 처녀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8	마음에 드는 청년	결혼·노동				
1988	민족의 태양 3부: 대화와 거품		리춘구	엄길선	백두산, 보천보	
1988	별무리	고아양육	조순철·최부길	최부길		
1988	병사들의 고향	제대군인	문관	채풍기		
1988	봄부터 여름까지	항일				
1988	삶의 권리	체제우월			2·8	정권40 주기념
1988	서두른 결혼	결혼과 노동				
1988	아버지와 아들					
1988	어느 한 해안도시에서	간첩·반미			2·8	
1988	영생 전·후편	김철주	송상원	류호손	백두산, 2·8,월미도	
1988	요람 1·2부	소작여성	오혜영	김덕규	왕재산· 조선예술	
1988	우리 삼촌집 문제	관료주의				
1988	우리 영심이	밥공장			평양연극 영화대학	
1988	의용군 녀병사 전·후편	전쟁				
1988	자신에게 물어보라	3대혁명소조	리춘구	박정주	왕재산	
1988	처녀운전수	노동				
1988	하늘가 멀리서도					
1988	하늘의 6부자					
1988	한마음으로	체제우월:사경의 환경구원	리진우	채풍기		
1988	한생을 바쳐					
1988	한순간					
1989	6호집소동		신강철	김초남	2·8,월비산	
1989	겉보기와 속보기		김인걸	박중호	왕재산, 조선예술	
1989	공청원들		장광남	리경진	"	
1989	꼭절많은 운명 1부 전·후편	인텔리	리춘구	최부길	왕재산· 조선예술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9	그 등무가 온 후		리일천	김천	대흥단, 조선예술	
1989	내가 설자리		리종현	리상규	2·8,월미도	
1989	높은 산정에서		김윤봉	박정주·문정승	왕재산, 조선예술	
1989	누구때문에		전창호	박주국	보천보	
1989	두그루 백양나무 전·후편		박국태	리상규	2·8,월미도	
1989	들놀이 하는 날		최정건	전백연	보천보	
1989	림격정 3부: 청석골		김세륜	장영복	왕재산, 조선예술	
1989	림격정 4부: 서울		김세륜	장영복	"	
1989	림격정 5부: 피의교훈		김세륜	장영복	"	
1989	몰라서가 아니다		원응석	리효철	2·8,대덕산	
1989	민족의 태양 3부: 광복의 봄 전·후편		김희봉	박창성	보천보	
1989	밀림속의 메아리	항일	설주용	강중모	2·8,월비산	
1989	보고도 못본체		박창수	김무전	왕재산, 조선예술	
1989	비상대책		고일	고일	2·8,월비산	
1989	생의 흔적 전·후편	협동농장	리춘구	조경순	2·8,대덕산	
1989	선두개의 별		리덕운	리승호	대흥단	
1989	시인조기천		김승훈	박상복	삼지연	
1989	심장에 남는 사람 1·2부	당일꾼·김정일	리춘구	고학림	삼지연	
1989	아름다운 기슭	김일성	박창룡	홍광순	평양연극 영화대학	
1989	아버지의 마음		문관	채풍기	2·8,월미도	
1989	어제도 오늘도		리병일	김덕규·김유광	왕재산, 조선예술	
1989	우리 선생님	교원역할	김영일	김라예·림룡성	평양연극 영화대학	

연도	제 목	내 용	작 가	연 출	제 작 소	비 고
1989	일요일에 있는 일		박문재	정운	2·8,월비산	
1989	잊을 수 없는 추억		오현락	김길화·백현구	대흥단, 조선예술	
1989	잘 있으라 내사랑아			정건조	삼지연	
1989	전사들	전쟁	석윤기작· 리상욱	김상룡	2·8,월미도	
1989	정다운 불빛		최용수	림창범·김성일	삼지연	
1989	제2전선 1·2부		량정무	박승욱	2·8,대덕산	
1989	중대장		로명천	류영만	2·8,월비산	
1989	축하합니다		장유선	김천	대흥단, 조선예술	
1989	편지	노동·농사	김국성	김길인		
1990	5시부터 5시까지					
1990	고향땅					
1990	꼭질많은 운명 2부	전후복구: 인테리				
1990	나의 어머니					
1990	내가 만난 사람들 1부: 먼 길을 걷는 사람들					
1990	노래속에 꽃피는 가정					
1990	민족의 태양 4부: 백두밀영 전·후편		김희봉	박창선	백두산, 조선예술	
1990	붉은 단풍잎 1~3부					
1990	빛나는 아침 전·후편		권정웅작· 오진홍	엄길선	백두산, 조선예술	
1990	세번째 금메달					
1990	숲속에 갈릴길	임업	리세일	리승호		
1990	아무도 몰라	전쟁				
1990	여기도 전선이다.					
1990	우리는 청춘 전·후편	청년건설자	오현락	조경순	2·8,대덕산	
1990	철산봉의 아들					
1990	흰저고리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  
北亞秩序 豫測(Ⅰ)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  
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3 統一費用 研究(Ⅰ)

- 93-14 베트남 綜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一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의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世界主要事件日誌〉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年例情勢報告書〉

91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1992~1993

〈論 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資 料〉

92-01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吳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研究報告書 93-20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3년 12월 일

發行日 1993년 12월 일

---

---